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혜 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악기 사용법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이 은 하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악기 사용법 및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박 혜 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이 은 하

인 준 서

이은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예술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 이에 초, 중, 고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문화센터에서 악기교육의 확대로 인하여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매우 다양해 졌다. 이러한 예술 문화의 관심으로 관악기인 플루트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플루트는 아마추어들을 위한 지도 방안이나 악기 선택 및 관리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플루트 아마추어에 가장 기초인 효율적인 악기 선택이나 관리법, 입문자를 위한 교육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기본적 이해와,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플루트 선택, 조립법,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의 교육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해보고, 기본적 악기의 이해를 통한 악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기본연주자세 및 호흡연습법에 대한 효과적인 플루트 지도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교육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현황 조사는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배우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루트를 배우는 장소는 음악학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플루트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본인이 배우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목적으로는 여가, 취미, 특기를 위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목표 수준은 중급 혹은 고급과정 연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원하는 음악장르는 대중음악이나, 교회음악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악기 선택 및 관리법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루트 교육에 있어 호흡법이나, 소리 내기, 텅잉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배우는 장소에 따른 성취도 조사에서는 개인 1:1 레슨의 경우가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의 이해의 부분에서도 개인 1:1 레슨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교재 및 지도 방안의 교수법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플루트 아마추어들에게 악기 선택 및 관리법, 그리고 지도방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2 장 플루트 악기의 구조와 명칭	4
제 1 절 플루트 악기의 구조와 특성	4
1. 플루트 악기 구조	4
2. 구조의 특성	5
제 2 절 구조와 명칭	6
1. 윗관(head joint)	7
2. 본관(body joint)	12
3. 아랫관(foot joint)	20
제 3 장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악기 사용법	23
제 1 절 아마추어를 위한 악기 선택	23
1. 적절한 초급자 악기의 옵션과 스타일	23
2. 다양한 초급자용 악기들	28
제 2 절 아마추어를 위한 악기 조립법 및 관리법	34
1. 플루트의 조립법	34
2. 플루트의 관리법	38

제 4 장	효과적인 지도 방안	41
제 1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에 대한 설문 조사	41
1.	연구 대상	41
2.	연구 도구 및 자료의 처리	41
3.	설문지 분석	44
제 2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연주자세	55
1.	선 자세	55
2.	손과 팔의 위치	56
3.	플루트 쥐는 방법	64
제 2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호흡법	65
1.	복식 호흡	65
2.	호흡시 유의점	67
제 3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암부셔	67
1.	암부셔(Embouchure) 만들기	68
2.	립플레이트(Lip Plate)에 입술 위치고정과 턱의 움직임	70
제 5 장	결론	72
제 1 절	연구의 결론	72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		

표 목 차

<표2-1> 플루트의 심장, 암부셔의 구조	11
<표2-2> 톤-홀은 용접 유무에 따른 2가지 타입	15
<표3-1> 초급자에게 적합한 플루트 사양	27
<표3-2> 초보용 플루트	33
<표4-1> 설문지 구성	42
<표4-2> 연구대상일반적인 사항	44
<표4-3>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	45
<표4-4> 플루트 배우는 목적	46
<표4-5> 원하는 플루트 목표 수준	47
<표4-6> 본인의 성취도	48
<표4-7> 음악의 이해에 대한 생각	49
<표4-8>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음악 장르	50
<표4-9> 악기의 선택법이나 관리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51
<표4-10>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	52
<표4-11> 플루트 배우면서 생긴 바람직한 변화	53

그 립 목 차

<그림2-1> 플루트 윗관(head joint)	7
<그림2-2> 플루트 윗관(head joint) 구조	8
<그림2-3> 플루트 본관(body joint)	12
<그림2-4> 포스트 제작과정	14
<그림2-5> BODY의 키-이름과 그 외 각부 명칭	17
<그림2-6> KICKER와 LUG의 연결구조	19
<그림2-7> 아랫관(foot joint)	20
<그림2-8> 아랫관(foot joint)의 키-이름과 각부 명칭	21
<그림2-9> C-Foot과 B-Foot 비교	21
<그림3-1> 게마인하트 F200CS	28
<그림3-2> 펄 PF501	29
<그림3-3> 암스트롱 104	30
<그림3-4> 쥬피터 511S	31
<그림3-5> 야마하 YFL221 &YFL211	32
<그림3-6> 플루트관 명칭	34
<그림3-7> 본관과 아래관의 연결점 표시	35
<그림3-8>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돌아간 경우	36
<그림3-9> 올바른 위치	37
<그림3-10> 지나치게 안쪽으로 돌아간 경우.	37
<그림4-1> 플루트 연주 선자세	56
<그림4-2> 팔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림	57
<그림4-3> 팔을 들고 있는 바른 자세그림	58

<그림4-4> 플루트를 받치고 있는 그림	59
<그림4-5>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의 위치	59
<그림4-6> 오른손과 플루트가 거의 직각방향인 그림	61
<그림4-7> 왼손 새끼손가락이 레버위에 있는 그림	63
<그림4-8> 왼손 새끼손가락이 레버 밑에 있는 그림	63
<그림4-9> 플루트 쥐는 방법	64
<그림4-10> 횡경막	66
<그림4-11> 암부셔(Embouchure)	6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배우고 즐기며, 특히 맑고 투명한 음색을 지닌 플루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중적인 악기가 되어가고 있다. 플루트는 악기의 특성상 휴대가 간편하고 다른 악기에 비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보급이 보편화 되고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플루트 지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악기의 주법이나, 테크닉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먼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악기는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 악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악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악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악기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함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고, 악기를 배우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루트 입문자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선행 학습으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재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즉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플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플루트 악기 사용법과 같은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플루트 악기의 연주법이나 주법과 같은 테크닉 위주의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플루트의 이해와 악기 선택법, 조립법, 관리법과 기본적인 악기 사용법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플루트의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플루트의 사용법으로 선택법, 조립법,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현황 및 요구사항,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본적인 악기의 이해를 통한 악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기본연주자세 및 호흡연습법에 대한 효과적인 플루트 지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악기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한 지도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플루트의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연구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플루트 악기의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하기보다 플루트의 이론적 바탕을 통한 지도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에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플루트 악기의 구조와 명칭, 플루트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플루트 입문자를 위한 사용법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악기 선택법, 조립법,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입문 단계에서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플루트 교육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 문화센터, 음악학원, 개인 및 단체 레슨에서 플루트를 배우는 아마추

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본 아마추어의 기본적 악기의 이해를 통한 악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기본연주자세, 호흡연습, 암부셔에 대한 효과적인 플루트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플루트 악기의 구조와 명칭

제 1 절 플루트 악기의 구조와 특성

1. 플루트 악기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연주되고 배우는 플루트는 콘서트 플루트(Concert Flute)라고 하는데 윗관(Head Joint), 본관(Body Joint) 그리고 아랫관(Foot Joint)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윗관은 위쪽 끝이 플러그(Plug)이라 부르는 코르크가 부착된 마개로 닫혀져 있으며 부는 구멍이 있는 마우스피스(Mouthpiece)가 있다.

본관은 온음과 반음 그리고 트릴(Trill)연주에 필요한 각종 키(Key)장치로 되어있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키를 닫고 열 수 있는 장치로 되어있다.

아랫관은 C음을 최저음으로 연주하는 기본형이 있으며 키의 추가에 의해 B음까지 연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C-key 가 많이 사용되며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B음까지 낼 수 있는 확장된 키가 사용된다.

전체적으로는 C-key는 16개 B-key는 17개의 음공(Tone Hol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뵘식 키(Bohm System Key)가 부착되어 있다.

헤드는 원추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디는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구조의 특성

플루트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취주 악기중의 하나로 목관 악기(woodwind)에 속하며 목관 악기 중에서 자연에 가까운 소리와 경쾌한 느낌을 연출하여 인간의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악기이다. 오늘날 보통 「플루트」로 불리우는 Böhm식 플루트는 전체 길이가 약 67cm~68cm인 곧은 관으로 되어 있으며 재료는 목재나 혹은 그 밖의 재료로 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색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단지 금속제 플루트가 목재 플루트보다 조금 더 밝고 금속성일 뿐, 실제 연주할 때 그 차이는 거의 구별할 수 없다. 금속제 플루트의 장점은 특히 가볍게 소리 나며 강하게 소리 낼 때 그 울림이 약간 날카로워진다.¹⁾

금속제 플루트는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애용되며 독일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플루트의 관은 윗관(head joint), 본관(body joint), 아랫관(foot joint)으로 구성되었으며, 윗관은 전체길이의 약 1/3에 해당되며 원추형이다. 맨 윗부분에 조울코크(stimmkork)라 불리는 마개로 닫혀져 있으며, 마우스피스가 뚫려있다. 조울코크에 의해서 닫혀있는 플루트 관에 바람을 주입하면 독특한 소리를 내게 하는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 구멍이다. 쉽게 입술을 대기 위해서 마우스피스의 부분을 높이는 경우를 소위 개량부리라 부른다. 금속제 플루트의 상단부에는 에보나이트, 상아, 혹은 상단부와 동일한 금속으로 된 취구관이 부착되어 있다. 이 취구관은 금속제 플루트의 상단부가 원추형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헤드조인트는 원추형 소리관으로 인해 플루트 고음들은 배음열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들을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으며 그 소리들은 매우

1) 김연화, 「Flute의 구조적 변천과정과 연주기법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p14-16.

맑고 깨끗하다. 중심부는 플루트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본체를 말하며 대개 흑단 나무와 비슷한 Grenadill 나무(시계초과의 식물)나, 코카야자수로 만든다. 또한 금속제로는 은이나 니켈 혹은 놋쇠 등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그 형태는 원추형이다. 공기조절장치인 덮개에 의해서 여닫을 수 있는 지공이 뚫려있는 부분이 중심부이며 지공의 기능은 주입된 공기에 의해 중심부의 진동체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개개의 음을 내게 한다. 현대의 Böhm식 플루트는 더 이상 링이 필요 없으며 모든 지공에는 공기조절 장치인 덮개가 부착되어있다. 플루트의 덮개는 비교적 간단하며 오보에나 클라리넷보다 더욱더 간단하다. 또한 추가로 부착된 Thumb b-key가 있다.²⁾

하단부는 플루트의 끝의 짧은 부분이며 C, C#-D#을 내는 덮개만 있으며 D#음에 해당하는 덮개를 닫으면 D음이 난다. B음을 내려면 수 있는 하단부를 더 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 2 절 구조와 명칭

플루트는 서로 분리가 되는데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마우스피스가 붙는 윗관과 모든 키를 포함하고 있는 중간 부분을 본관이라고 하고 본관 아래의 짧은 부분을 아랫관이라 부른다. 윗관은 코르크를 금속판으로 감싼 것으로 막혀 있는데, 헤드 스크루(head screw)로 조절하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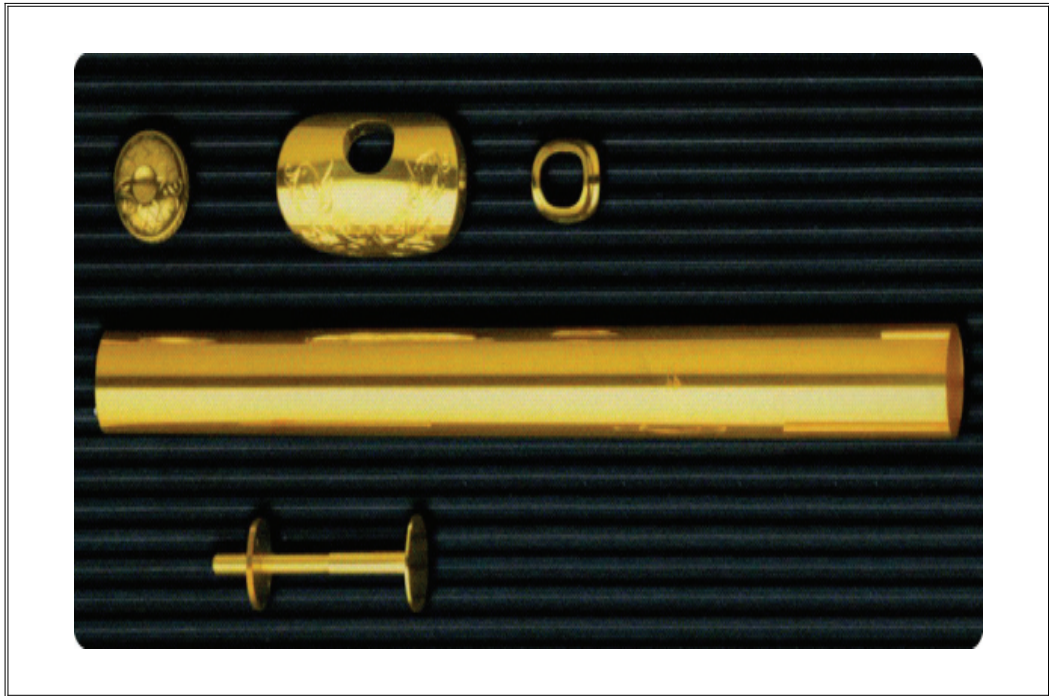
고음에서 저음까지의 음을 좋은 밸런스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피스 중앙에서 헤드 스크루 까지 거리를 17mm에 맞추어두며 헤드 스크루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2) 김연화, 「전개 논문」, 2008, pp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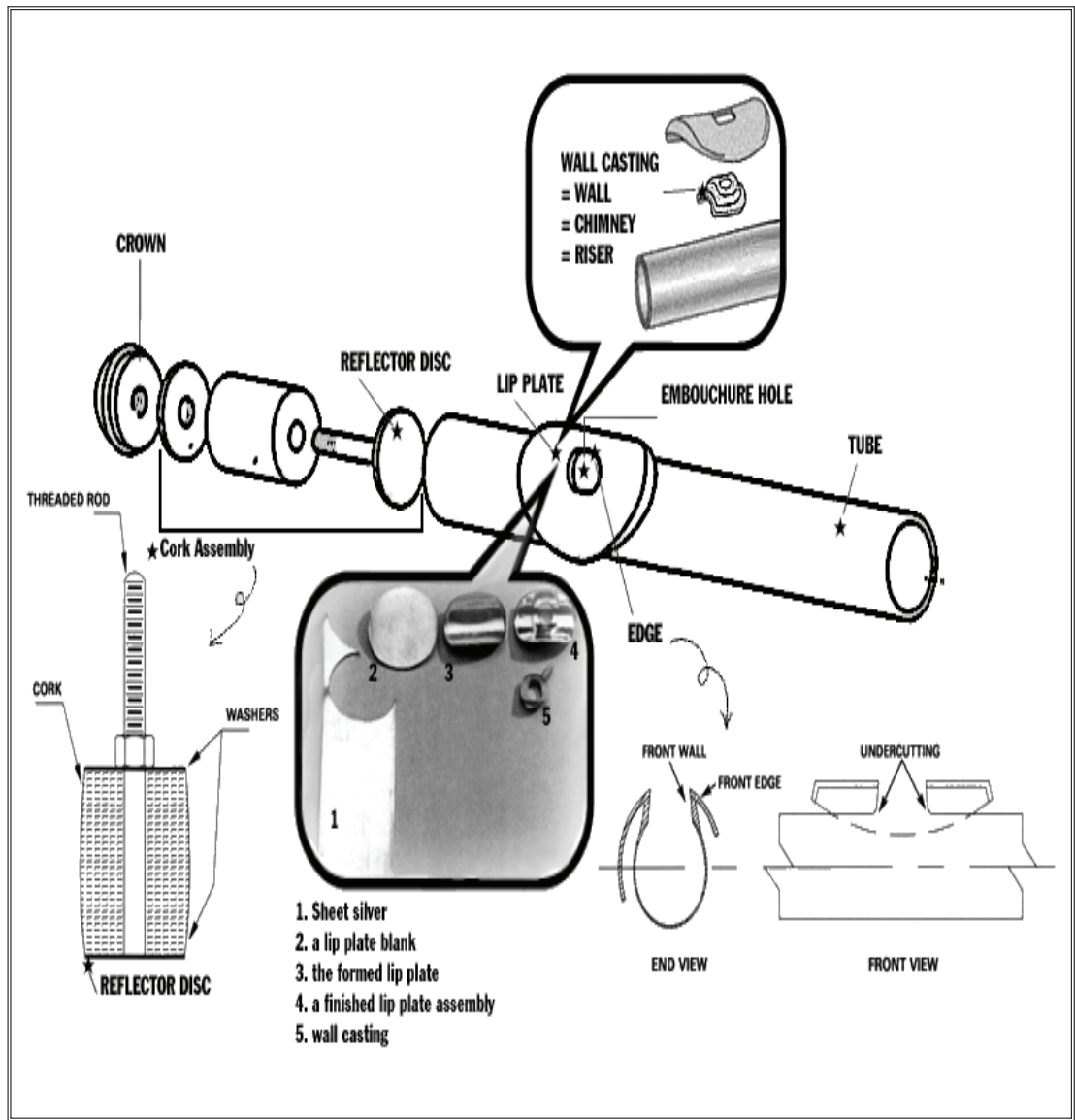
본관과 아랫관 에는 손가락으로 짚는 많은 키가 붙어있고 키의 아래쪽에 구멍을 패드(pad)로 개폐 한다.

1. 윗관(head joint)

플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의 플루트 전문 연주가들과 제작자들은 헤드조인트라고 말하고 있다. 그 구조를 살펴보자.



〈그림2-1〉 플루트 윗관(head joint)



〈그림2-2〉 플루트 윗관(head joint) 구조

1) Head joint Tube (윗관 튜브)

윗관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면 원통 모양의 본체와는 달리 끝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점차 작아지는 원뿔대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헤드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음향을 연구한 결과, 이런 원뿔대의 헤드가 풍부하고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며 배음(하모닉스)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재료는 금, 은, 니켈, 플래티늄 등의 금속판을 인발작업 해서 튜브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2) 크라운 (Crown)

크라운(Crown)은 모양을 내기 위해 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헤드조인트 안에 있는 반사판의 위치를 조정하는 도구이다. 또한 플루트 전체 무게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3) 코르크와 반사판 (Cork Assembly)

코르크와 반사판(Cork Assembly) 은 코르크 (Cork), 나사봉 (Threaded Rod), 반사판, (Reflector Disc), 와셔(Washer)³⁾로 구성되어 있다.

헤드조인트의 내부를 보면 헤드조인트 한쪽 끝을 막고 있는 금속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반사판 이라고 한다. 반사판 위치는 플루트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반사판의 위치가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면 저음과 고음의 음정이 고르지 못하며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음향을 제대로 얻

3) 볼트나 너트로 물건을 쥘 때 너트 밑에 넣는 둥글고 얇은 금속판

을 수 없다. 보통 기준이 되는 거리는 암부셔 홀(Embouchure Hole)의 중심에서 17mm ~ 17.5mm 정도이다. 기준치 이상이면 음정이 낮아지고 그 이하면 음정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음에서 저음까지 음을 좋은 밸런스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추천 위치에 맞추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반사판과 와셔 사이의 나사봉 에는 코르크를 끼워놓는데 너무 꽉 끼어 있으면 헤드조인트가 소리를 흡수해서 약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바람이 새서 잡음 섞인 소리가 난다. 코르크는 건조하면 줄어드는데 습기가 차고 늘지는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코르크가 많이 수축한 플루트는 헤드크라운이 험령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반사판이 헤드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바람이 크라운 쪽으로 새어나가게 되어 음정이 불안하게 변하여 플루트 고유의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 소모품인 코르크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플루트 원래의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악기를 사용한 후에는 헤드의 안쪽을 깨끗하고 건조한 천으로 항상 깨끗이 닦아서 악기 케이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4) 플루트의 심장, 암부셔(Embouchure)의 구조

아래의 표<2-1>에서 나타난 부분의 부품들의 모양과 재질은 플루트의 음색을 결정한다.

〈표2-1〉 플루트의 심장, 암부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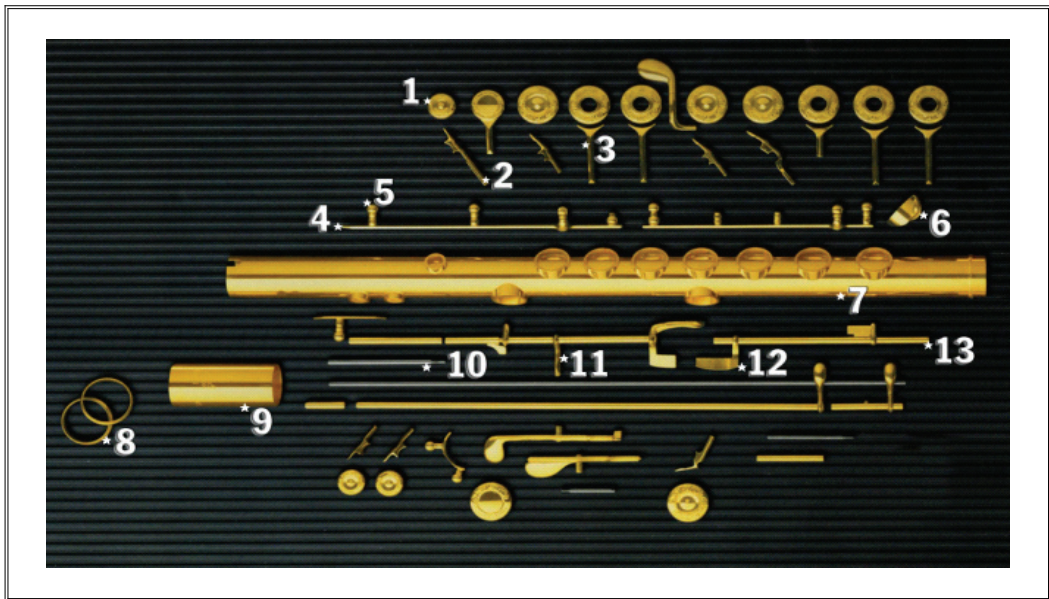
구조	역할 및 설명
Lip Pl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립플레이트, 입술을 직접 대는 곳. - 립플레이트 모양은 입술에서 나온 바람을 튜브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엷지와 함께 많은 영향을 끼친다.
Embouchure 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부서 홀, 취주구멍, 바람이 들어가는 곳.
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엷지, 입술의 바람이 처음으로 부딪히면서 갈라지는 암부서 홀의 가장자리. - 입술에서 나온 바람이 저항을 받지 않고 빠르게 헤드 튜브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엷지 부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고음에서 저음으로, 저음에서 고음으로 소리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Wall Ca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게 줄여 Wall이라고도 하며 굴뚝같은 연결통로라 하여 Chimney, 또는 수직도관이라는 뜻으로 Riser라고도 한다. 립 플레이트와 튜브를 연결시켜주는 부분. 이 통로의 높이에 따라 고음과 저음의 소리 내기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진다.

5) 언더 커트 작업 (Under Cutting)

암부셔홀의 아래쪽을 다듬는 일. 용접에 의해 결합된 립 플레이트는 플루트 음향의 볼륨을 크게 하고 소리가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언더컷 작업을 해야 한다. 보급형은 대량생산을 위해 전기드릴을 이용해 작업을 하지만 수제 고급형의 경우는 기술자들이 조각칼을 사용하여 손으로 작업하고 있다.

2. 본관(body joint)

플루트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닌 바디의 각부 명칭과 부품들을 알아보자.



〈그림2-3〉 플루트 본관(body joint)

1) 바디의 각부 명칭과 부품

(1) 키 컵 (Key - Cups)

플루트의 키-컵은 얇은 띠 모양의 양은(니켈실버), 은, 금 등의 판을 펀치프레스(Punch Press)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컵에 팔(Arm)을 용접하여 Y-Arm 또는 Pointed-Arm 형태의 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2) 포인티드-암 (Pointed-Arm)

French style Pointed-Arm(그림2번)이라 하여 중급용 일부와 전문가용에 선택 사양으로 적용되는, 그 모양이 새의 발톱과 같은 모양으로 흘컵을 지지하고 있으며 흘컵 전체에 일정한 힘을 전달하여 정확하게 톤홀을 닫아주는 역할을 한다.

(3) Y-암 (Y-Arm)

Y-Arm은(그림3번)오픈 키에 사용되며, 초급용과 중급 용 악기의 모든 키에 사용되는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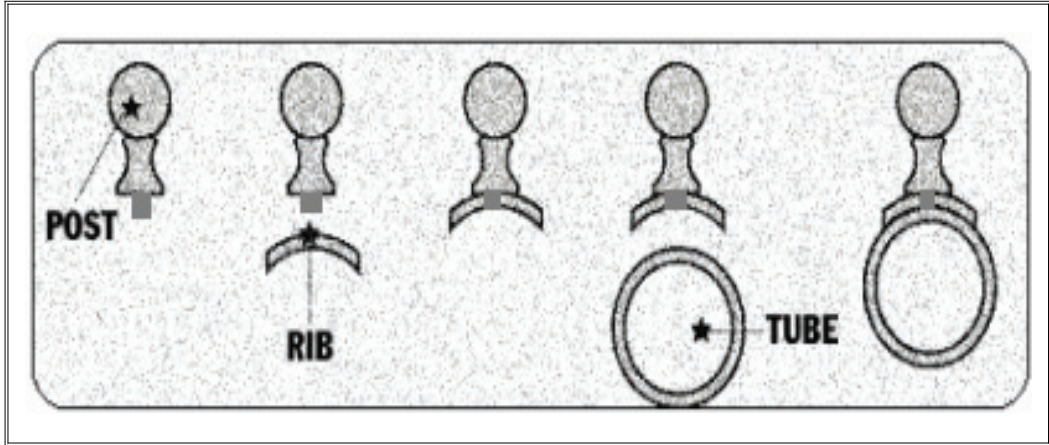
(4) 립 (Rib)

튜브(플루트 관)에 키를 고정할 기둥을 세우기 위한 받침대 이다.

(5) 포스트 (Post)

튜브에 키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둥. 정확한 위치와 높이가 되도록 포스트를 세워야 톤홀을 확실하고 정밀하게 여닫을 수 있으므로 고도의 정밀

도와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작과정이다. 아래의 그림<2-4>는 포스트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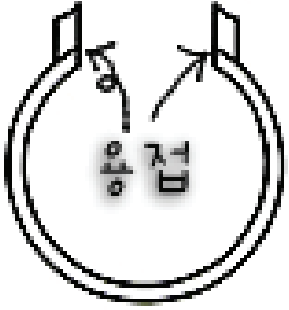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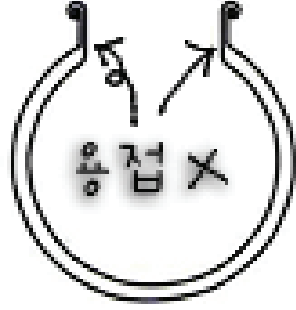


<그림2-4> 포스트 제작과정

(6) 소리구멍 (Tone-Hole)

플루트 튜브에 크고 작은 16개의 톤-홀(C foot 기준)을 1/1000mm단위 까지 계산하여 정확한 자리에 만든다. 톤-홀은 용접 유무에 따라 2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2가지 타입을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표2-2〉 톤-홀은 용접 유무에 따른 2가지 타입

<p>솔더드 톤-홀: 용접해서 붙인 타입.</p>	<p>드로운 톤-홀: 용접을 하지 않고 튜브에서 끌어 올림.</p>
 <p>SOLDERED TONE HOLE</p>	 <p>DRAWN TONE HOLE</p>

(7) 관

니켈, 은, 금, 백금 등의 각 금속의 성질에 따라 관의 두께가 조금씩 다르다.

(8) 링 (Ring)

튜브의 끝부분을 강화시키고 보호하며, 연결(joint)부위가 변형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

(9) 조울관 (Barrel)

통이라는 뜻으로 헤드조인트와 바디를 연결하며 플루트의 조울관에 해당한다. 보편적으로 음정이 높으면 빼고 음정이 낮으면 꼽아서 다른 악기들과 음정을 맞춘다.

(10) 스틸 (Steel)

Mechanism-Tubing(그림13)안에 들어가는 막대기 모양의 철심이다. 스틸

의 주요 성분은 쇠(철)이며 적당량의 탄소와 합금하여 만들어진다.

(11) 키키 (Kicker)

키의 열고 닫히는 범위를 조절해주는 Arm. 음정과 직접 관련 있는 Opening size를 결정한다.

(12) 리그 (Lug)

<그림2-3>의 13번 부품, Mechanism-Tubing 에 붙어있는 키 조절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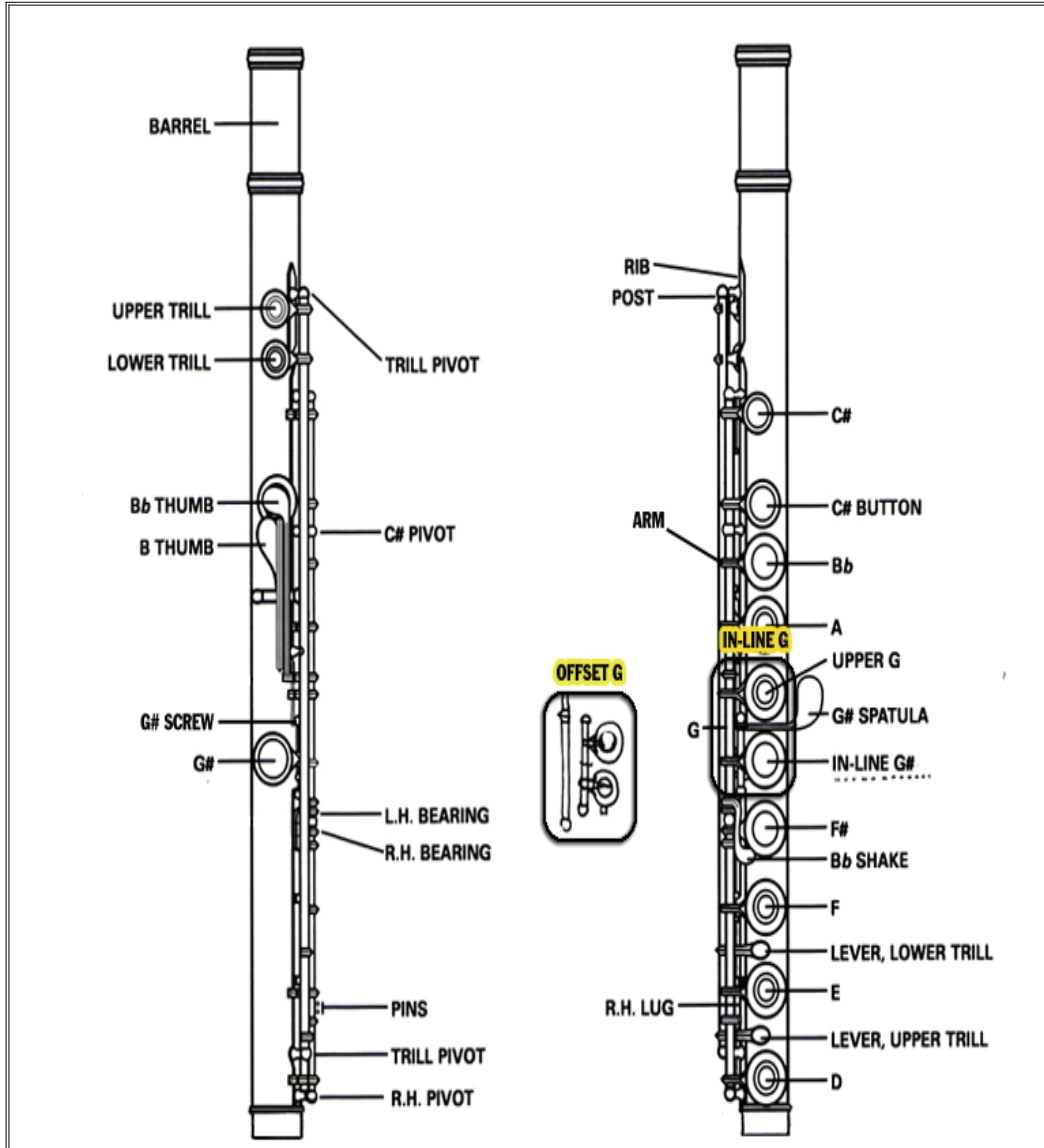
(13) 키- 튜브 (Mechanism-Tubing)

짧게 줄여Tubing 이라고도 하며, 키와 키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이다.

(14) 스프링 텐션 (Spring-tension)

장력을 이용하여 키의 움직임을 제공한다. 굵기, 길이에 비례하며, 연주력 (테크닉)뿐만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2) BODY의 키-이름과 그 외 각부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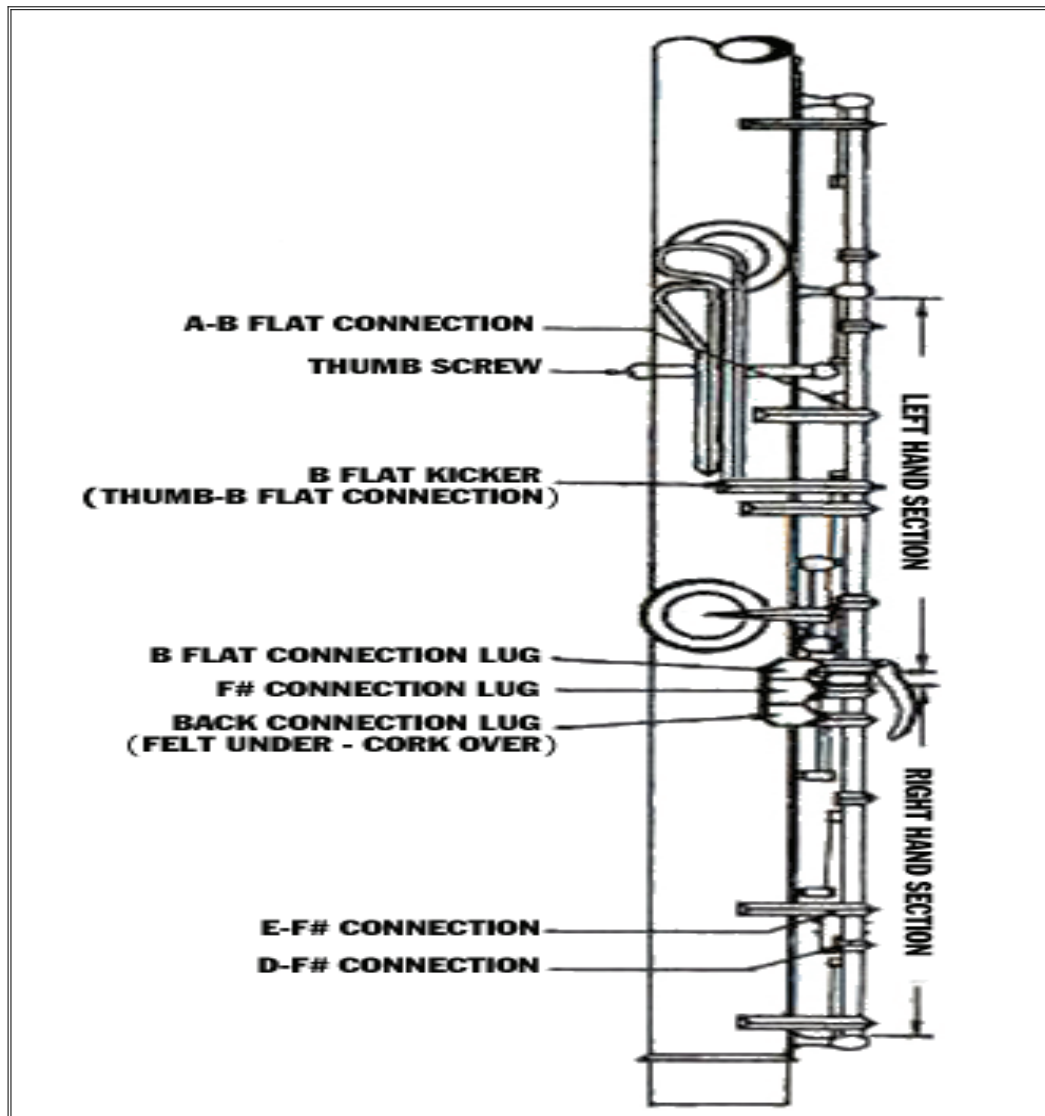
<그림2-5> BODY의 키-이름과 그 외 각부 명칭

(1) 피봇 스크류(Pivot Screw)

짧게 줄여 Pivot 이라고 명칭 한다. 작은 나사못이며 키-튜브와 그 안의 스틸을 정확하게 고정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모든 부분을 피봇으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Upper-Trill(위쪽 TRILL PIVOT), Lower-Trill(아래쪽 TRILL PIVOT), R.H PIVOT(Right-Hand PIVOT)의 세 개의 피봇이 있다. 각 피봇의 모양과 크기는 모두 같으며 호환도 가능 하나 가급적이면 만들어 질 때 끼워졌던 자기 자리에 계속 위치하는 것이 악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시켜준다. 제작당시 사이즈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에서 설명된 C# 피봇은 키-튜브에 내장되어 있는 나사이다.

(2) 플루트 옵션 (OFFSET G or IN-LINE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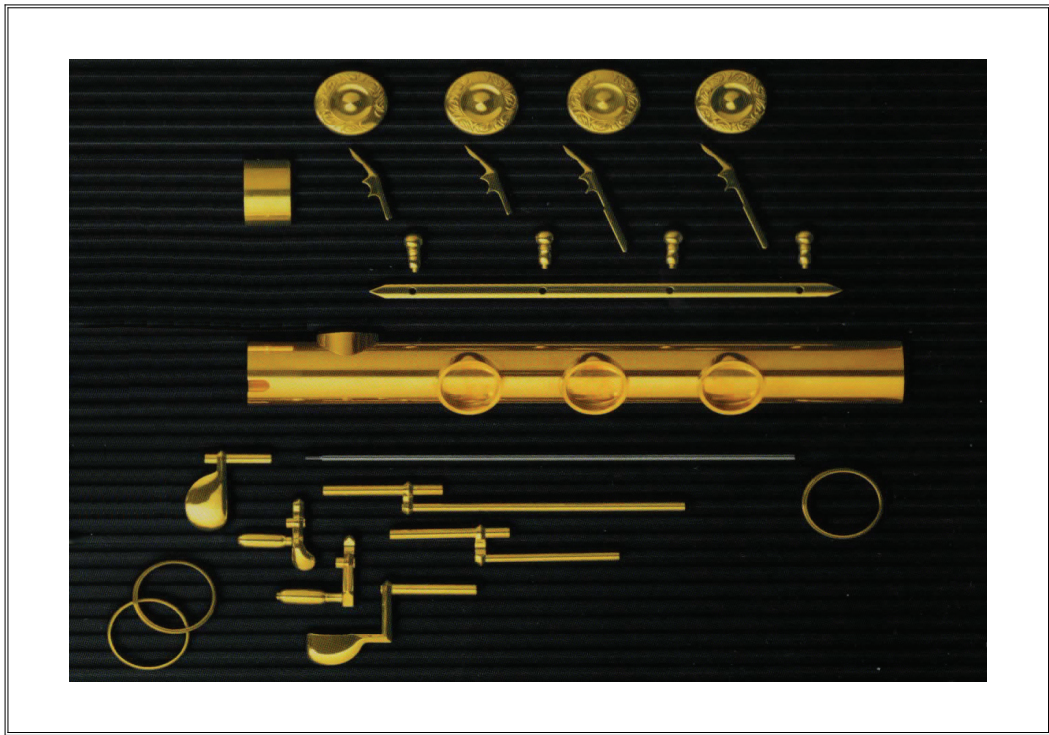
플루트의 옵션 중에 오프셋 G와 인라인 G가 있는데 인라인G는 프렌치모델이라 하며 키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오프셋 G는 G키가 라인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이다. 음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손의 크기와 근육의 발달에 맞추어 선택하는 옵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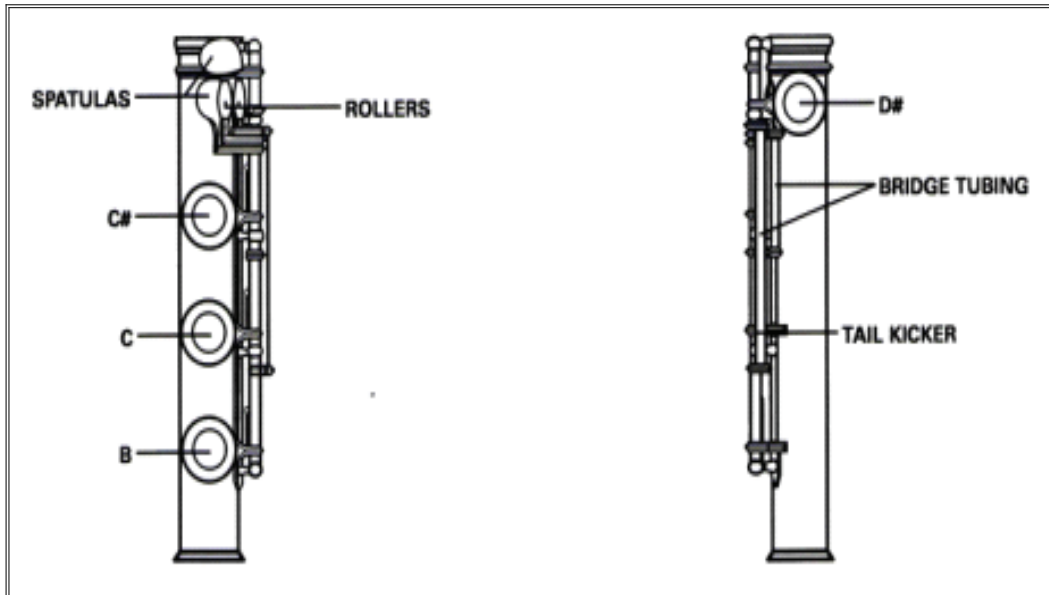
〈그림2-6〉 KICKER와 LUG의 연결구조

3. 아랫관(foot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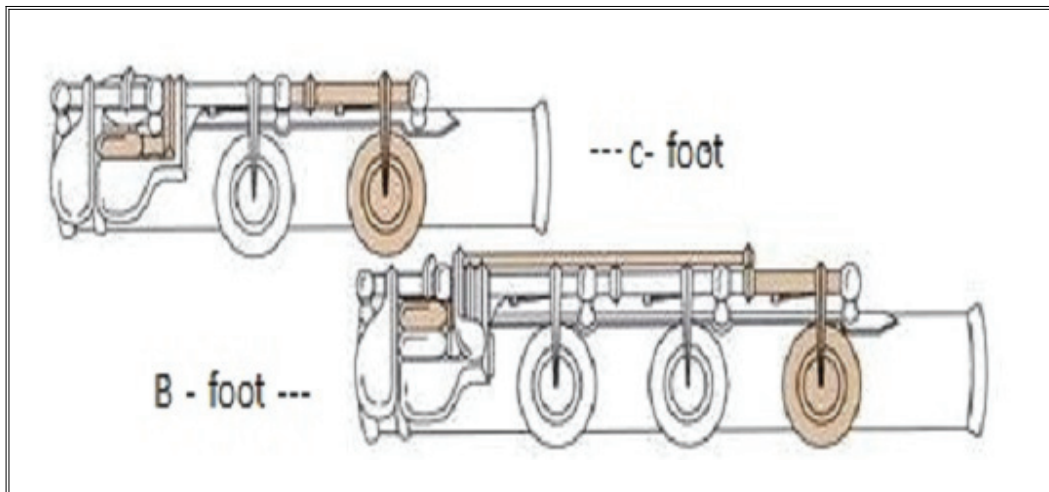
아랫관인 풋 조인트에는 C foot과 B foot의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우선 키-이름과 구조부터 살펴보자.



<그림2-7> 아랫관(foot joint)



〈그림2-8〉 아랫관(foot joint)의 키-이름과 각부 명칭



〈그림2-9〉 C-Foot과 B-Foot 비교

처음 플루트를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음이 도(C)로 시작하는 C-Foot joint 플루트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2~3년 후 중급 정도의 연주 실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음을 반음('도' 와 '시' 사이의 반음 차이) 낮은 시(B)까지 낼 수 있는 B-foot joint 플루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는데 두 악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B-Foot는 C-Foot에 비해 약간(약 20-30g)정도 아래쪽이 더 무겁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연주를 할 때 플루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고 한다. 즉 플루트의 무게중심이 연주하기에 편하도록 되어 연주 중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B-Foot 플루트는 C-Foot에 비해 플루트의 전체길이가 4Cm 정도 길어져 연주를 할 때 호흡의 저항감을 약간 더 느끼게 된다.

셋째, C-Foot 플루트의 소리가 가볍고, 맑고, 밝은 음색을 가진다면 여기에 비해 B-Foot 플루트는 중후하고, 깊은 음색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문 연주를 위한 플루트 곡에는 C-Foot 플루트로 연주할 수 없는 낮은 시(B)음이 종종 섞여 있기 때문에 전문 연주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B-Foot 플루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는 모든 연습곡이나 연주곡들이 C-Foot플루트를 생각하고 작곡되므로 이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듣는 능력이 발달되어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 즉 음정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C-Foot의 소리보다는 B-Foot의 소리를 더 좋아한다.

결론적으로 플루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연주능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C-Foot 플루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2~3년 정도 연주 능력이 쌓이면 B-Foot 플루트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장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악기 사용법

제 1 절 아마추어를 위한 악기 선택

초급자는 호흡과 운지가 익숙하지 않아 소리연습과 제한된 음역의 연습곡만을 연주한다. 악기의 관리와 사용법도 미숙하여 자주 악기를 고장 내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용이 간편하고 쉽게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고장이 적은 악기가 적합한데, 이는 저먼스타일, E-메커니즘, C-풋조인트, 니켈실버로 구성된 악기로 요약된다.⁴⁾

1. 적절한 초급자 악기의 옵션과 스타일

1) 저먼스타일

저먼스타일은 오프-세트키에 클로즈드키를 구성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이는 초급자에게 보다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

오프-세트 키는 인-라인의 키와는 달리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왼쪽 손의 4개의 키(A#, A, G1, G2)들이 한 개의 라인에 부착되어 있어 스틸에 과도한 피로를 주는 인-라인스타일과는 다르게 두 개의 라인에 4개의 키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어 기계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초보자로 하여금 더욱 편한 핑거링을 제공하는 오프-세트의 키는 왼쪽 손의 4개의 키 중 아래쪽 두

4) 정병태, 「초급단계의 효과적인 플루트 지도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p14-17.

개의 키가 바깥쪽으로 나뉘어져서 일렬로 4개의키가 나열되어 있는 인-라인 키에 비하여 손에 쥐기가 수월하다.

클로즈드키는 오픈키에 비하여 음정이 정확하며 음색이 고른 장점이 있다. 이는 가운데 홀이 있는 키에 손가락으로 직접 소리구멍을 밀폐시켜야 하는 오픈키와는 달리 클로즈드 키는 스크루로 단단히 패드를 고정시킨 키 자체만으로 소리구멍을 밀폐시키기 때문이다. 손가락으로 직접 소리구멍을 막아야 하는 오픈키는 완벽하게 소리구멍을 막지 못하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 음정이 불안해 진다. 대부분의 초급자들은 이러한 오픈키 사용을 어려워하여 실리콘 등으로 홀을 막고 연주하는데, 가급적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오픈키 자체로 연주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클로즈드키는 기계적인 내구성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키의 중앙을 비워두어야 하는 오픈키의 구조상 패드를 고정하기 위해선 부싱이라는 단추형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단한 금속스크루와 와셔로 패드를 고정하는 클로즈드키에 비하여 안정적이지 못하여 패드의 변형으로 인한 고장이 많다. 또한 오픈키는 키의 구조성 패드를 만들고 교정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데, 적은 시간동안 많은 악기를 생산해야 하는 보급형 오픈키 악기에 이러한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보급형 오픈키 악기는 사용 중 패드가 자주 변형하는 문제로 나타나 결국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초급용 악기에는 오픈키보다는 클로즈드키가 더 유리하다.

세계적인 현대 플루트 제작자인 앨버트 쿠퍼(Albert. cooper)⁵⁾는 어떤 종류의 플루트가 제일 우수하냐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겼다.⁶⁾

5) Albert cooper: 영국의 플루트 제작자이며,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앨버트 쿠퍼 스케일을 탄생시킴.

6) 정병태, “앞의 논문”, 2006, p15.

“나로서는 G와 A키가 엇갈려지고, E가 분리된 메커니즘을 갖춘 폐쇄홀(Closed Key)을 택하겠다. 내게는 이것이 제일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델을 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G키와 A키가 일렬로 배열된 개방홀 플루트(프렌치 스타일)는 내 손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쥐기가 불편한데, 쓸데없이 근육이 긴장해서는 결코 좋은 연주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개방홀 플루트에 조금이라도 반감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 역시 현대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사분음과 글리산도를 낼 수 있는 이 플루트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일지라도 G키와 A키가 엇갈려지고 E키가 분리된 메커니즘을 갖춘 개방홀 플루트(조합형)를 사용할 생각이다. 나로서는 될 수 있으면 수월한 연주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⁷⁾

그는 굳이 손에 쥐기 불편하고 음색에 큰 차이가 없는 인라인 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현대 음악을 연주하게 되어 글리산도나 사분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필요하다면 그는 그 때도 주저 없이 오프-세트와 오픈키를 갖춘 조합형 악기를 선택 한다고 한다.

2) E-메커니즘

플루트는 3옥타브 ‘미’에서 불안정한 음색과 음정을 가지고 있는데 E-메커니즘은 이를 보완해주는 장치이다. E-메커니즘은 저렴한 보급형 악기에서부터 고급수제악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어지지만 소리와 음정에 자신이 있는 능숙한 연주자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고급수제악기에 E-메커니즘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악기의 메커니즘이 복잡해져서 무게와 고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7) James Galway, 「플루트」, 도서출판 예은, 1988, p67.

보급용 악기는 그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E-메커니즘이 장착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보급용 악기가 단단하고 가벼운 니켈실버로 만들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E-메커니즘 장착에 따른 무게증가와 고장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E-메커니즘은 소리를 내기 힘들어 하는 초급자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는 옵션이다.

3) C-Foot 조인트

C-Foot 조인트는 풋 조인트의 소리구멍이 총 3개로 구성되어 저음 ‘도’ 까지 낼 수 있는 악기를 말한다. 따라서 저음 ‘시’ 까지 낼 수 있는 B-Foot 조인트와 비교해서 악기의 음역이 하나가 줄어드는데, 소리를 내는 것에 서툰 초급자가 최저음 ‘시’ 를 연습할 기회는 거의 없다. 또한 초급자가 연주하는 연습 곡이나 짧은 소품 등도 거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역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초급자는 C-Foot 조인트 만으로도 충분한 연습과 연주를 할 수 있다.

오히려 초급자에게 B-Foot 조인트는 짐이 될 수 있는데, 저음 ‘시’ 음을 연주하기 위해 더 길게 확장한 튜브와 늘어난 키는 초급자에게 부담스러운 무게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B-Foot 조인트는 고음에서도 음정이 너무 높아지거나 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이러한 기능보다는 쉽게 소리가 나며 연주가 편한 가벼운 악기가 더 유리하다.

4) 니켈실버

초급자 플루트의 재료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다소 무거우며, 둔감할 수 있는 실

버 보다는 니켈실버가 적합하다. 니켈실버는 저렴하고 가볍고 단단하며 빨리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니켈실버는 적은 호흡과 노력으로도 쉽게 소리를 울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니켈은 보급형 악기의 재료로 많이 쓰여 진다.

니켈실버의 밝고 가벼운 음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라면 소량의 실버가 포함되어 있는 악기를 선택하면 된다. 보통은 립플레이트 실버 악기가 많이 선택되어 지는데, 이것은 초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할만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준다.

세계적인 플루트 연주자인 타파넬(Claude-Paul Taffanel)은 니켈의 화려하고, 울림이 좋으며, 무게가 가벼운 니켈실버악기 소리에 매료되어 그의 일생동안 니켈 악기를 고집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니켈악기는 소리가 좋지 않다.’ 라는 인식의 변화를 주기에 충분하다.⁸⁾

이외에도 니켈실버는 실버보다도 더 단단한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내구성에도 뛰어나다. 이것은 초급자의 미숙한 악기관리와 환경에서 오는 잦은 고장과 손상을 최소화해준다.

〈표3-1〉 초급자에게 적합한 플루트 사양⁹⁾

옵션, 스타일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먼 스타일 - C-Foot 조인트 - E-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니켈실버 혹은 립플레이트 실버

8) 홍인표, “초, 중급자를 위한 플루트 선택방법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52.

9) 정병태, “앞의 논문”, 2006, p17.

2. 다양한 초급자용 악기들

1) 게마인하트 F200CS (GEMEINHARDT F200CS)

미국 내의 초보자용 플루트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마인하트는 최근 국내 수입원이 바뀌면서 수입모델의 큰 변화가 생겼다. 모델명도 2ESP에서 F200CS로 바뀌고 키 디자인도 새로워졌다. 암부셔의 커팅도 예전보다 좀 더 소리가 쉽게 나도록 조정되었고 투박하던 케이스도 고급형디자인으로 교체되었다, 수입원측은 이로 인해 연주를 할 때 키 동작이 편해졌으며 소리내기도 쉬워지고 밝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다. 동의 합금 내용을 바꾸어 더 단단하게 만든 합금을 사용함으로 예전보다 키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비틀림 현상이 적어졌다고 한다.



〈그림3-1〉 게마인하트 F200CS

2) 펄 PF501 (PEARL PF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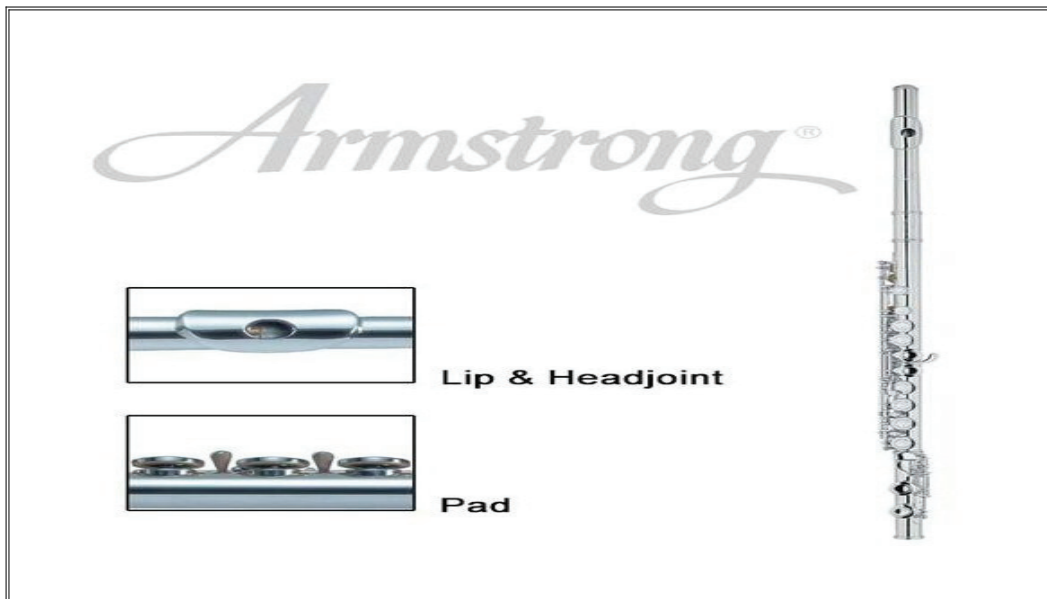
일본의 종합악기메이커인 펄은 초급자용 플루트 뿐 만아니라 수제플루트와 골드 플루트까지 생산하는데 이러한 펄 플루트 라인의 기본형 악기가 501모델이다. 중급이상의 악기는 일본에서 제작하지만 기본형 플루트인 501은 대만공장에서 제작한다. 중후한 음색과 깔끔한 마무리, 독특한 키 시스템으로 많은 고정팬을 갖고 있으나 공급단가가 비싸고 수입물량이 적어 대량판매의 어려움이 있다.



〈그림3-2〉 펄 PF501

3) 암스트롱 104 (ARMSTRONG 104)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초보용으로 인기를 얻었던 플루트 메이커이다, 그 중 104모델은 가장 기본형 모델로 미국에서 제작되어 비교적 원가가 높음에도 국내에서는 싸게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악기는 일본과 대만에서 제작되는 악기보다 소리내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관을 만드는 판 두께의 영향도 있다. 암스트롱은 원래 0.16인치 두께의 동판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104모델의 경우 헤드부분만 일본과 대만제 플루트와 마찬가지로 0.14인치의 관을 사용하고 좀 더 소리가 쉽게 울리는 스타일의 암부셔 커팅을 한다. 그러나 몸통은 원래의 0.16 관을 사용하므로 충격에 강하고 키의 비틀림이 적으며 무게감 있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림3-3〉 암스트롱 104

4) 주피터 511S (JUPITER 511S)

대만의 플루트 제작 기술은 능히 우리의 부러움을 살만하다, 일본의 고급 메이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만 공장들의 기술 축적은 곧 고급악기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만제 악기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주피터는 196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메이커인데 지금은 대만의 거대악기 제조회사인 뮤직스 그룹으로 흡수되어 관악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주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잔 고장이 적은 시스템과 사후관리라고 한다.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부품별 수입이 가능하고 또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발 빠르게 채용하여 제품에 도입하는 제작사의 열린 마인드가 사용자들에게 인정받아 최근에는 기본형 511시리즈 외에도 고급제품의 플루트와 알토 플루트등을 찾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림3-4〉 주피터 511S

5) 야마하 YFL221 &YFL211(YAMAHA 221 &211)

90년대 이후 초급용 플루트의 국내 보급률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야마하의 최근 대만에서 인도네시아로 초급용 플루트 생산라인을 옮기면서 초급용 플루트의 베스트셀러였던 F100을 단종 시켰다. 현재는 221이라는 모델명으로 새 악기를 내놓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생산라인 설립 당시 품질의 저하를 우려했던 주변의 염려가 무색해지도록 좋은 품질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야마하의 장점은 고급용 악기에서 채용한 메커니즘으로 잔고장이 적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기술과 설비의 투자에 자본을 아끼지 않아 노련한 기술진에 의한 균형 있는 설계와 품질관리가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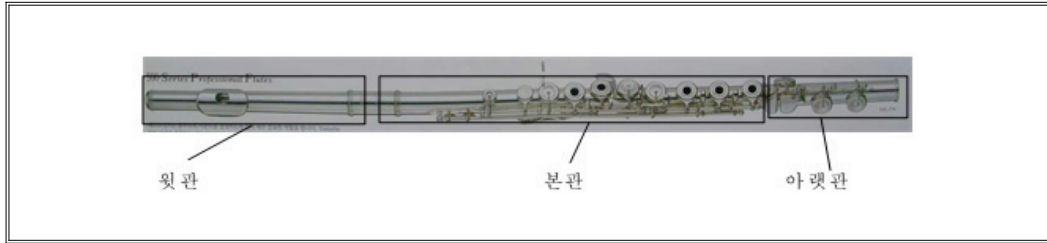
〈그림3-5〉 야마하 YFL221 &YFL211

〈표3-2〉 초보용 플루트

제조회사	모델명	추천용도
라뮤즈	JS-2810L	초보용
Estee	EF-100	초보용
비전	KSF-101	초보용
코스모스 COSMOS	F200S	초보용
	F235S	초보용
비바	보급형	초보용
삼익	보급형	초보용
게마인 하트	보급형	초보용
	2-SP	초보용
셀마	FL-300S	초보용
알버트 ALBERT	F-102S	초보용
	F-211S	초보용
주피터 Jupiter	511RS	초보용
제임스 James	TJ10X (Ekeys)	초보용
야마하 YA MAH	YFL-221S	초보용
	YFL-211S	초보용
	F-200	초보용
	YFL-581	전공용(초)

제 2 절 아마추어를 위한 악기 조립법 및 관리법

1. 플루트의 조립법



〈그림3-6〉 플루트관 명칭

플루트의 세 부분(윗관, 본관, 아랫관)을 바르게 조립하는 일은 언뜻 사소한 일처럼 여겨지기 쉬워 일반적인 플루트교본에서는 대개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플루트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조립법에 대한 부주의로 악기를 연주하기도 전에 음의 울림이나 테크닉의 향상을 현저히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악기형태가 변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조립법이 완전하게 몸에 붙어 습관이 될 때까지 교사는 이 점이 바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지도를 해야 한다.¹⁰⁾

먼저 윗관과 본관은 암부셔 홀이 본관의 첫 번째 키(트릴키를 제외하고)와 일직선이 되도록 연결한다. 이것은 손 모양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시켜야 한다.

10) 정병태, “앞의 논문”, 2006, p17.

플루트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바르게 조립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항상 같은 상태가 되도록 간단한 표시를 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악기회사에 따라 그런 표시를 처음부터 해 놓는 곳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왜 그런지를 알고 조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 그 위치 표시가 잘 맞지 않은 때도 있으므로 잘 확인 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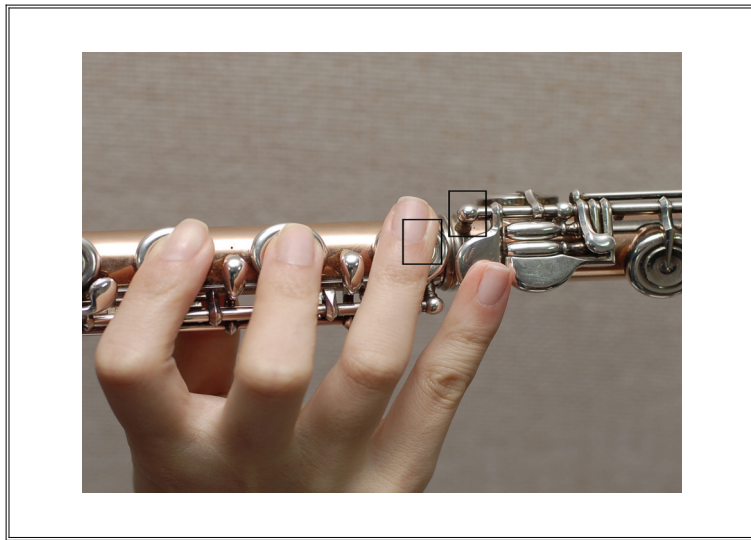


〈그림3-7〉 본관과 아래관의 연결점 표시

이 조립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은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플루트를 잡고 손가락의 움직임이 최대한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조립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초보자가 부는 경우는 압부서의 위치에 그다지 영향은 없지만 그 대신 조립법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플루트를 손으로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려야 하게 되고 결국 손의 위치가 어색하고 불안정해 지기 때문이다.

아랫관은 이 부분의 로드(막대)가 본관의 맨 끝 키(D key)와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연결한다. 여기서도 그 목적은 새끼손가락이 대개 약지보다 짧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손의 위치에서 최대한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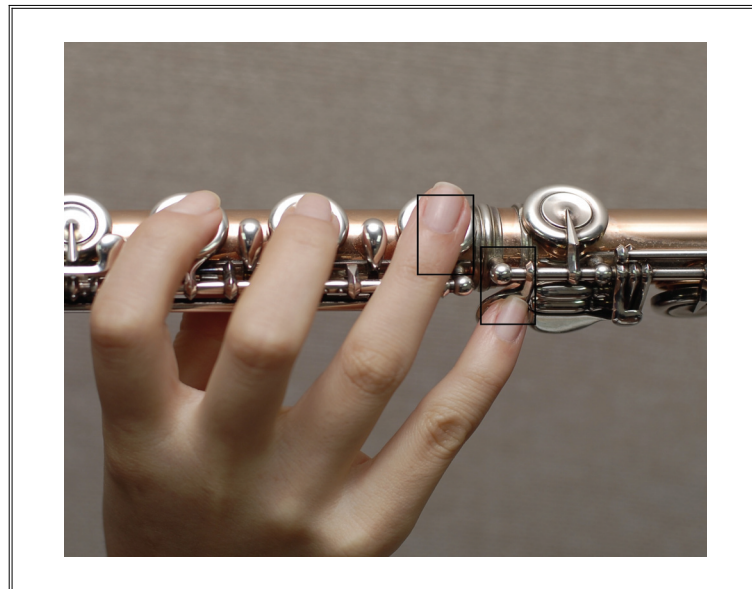
아랫관의 조립법이 바르지 않으면 오른손 손가락의 테크닉 향상을 크게 방해한다. 또 플루트를 단단히 받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암부서 사용법이 정상으로 향상하는 것도 방해한다. 만약 아랫관이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돌아가 있으면 새끼손가락을 그 레버에 닿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 손가락도 무리하게 키의 맞은편까지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아랫관이 안쪽으로 지나치게 돌아있으면 새끼손가락은 키를 바르게 누를 수 없게 되어 간단한 테크닉도 터득할 수 없게 된다.



〈그림3-8〉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돌아간 경우



〈그림3-9〉 올바른 위치



〈그림3-10〉 지나치게 안쪽으로 돌아간 경우.

2. 플루트의 관리법

1) 악기를 연주하기 전

플루트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손에 낀 반지는 빼어 놓습니다. 악기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② 입술에 바른 루즈나 Lip-Gloss등 화장품을 닦습니다.

2) 조립방법

플루트 악기를 조립하는 순서와 방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연결부분(joint)에 먼지 등 이물질이 없는지 살피고, 안팎을 잘 닦습니다.
- ② Headjoint 와 Body 조립 : Headjoint 와 Body 의 Barrel 부분을 잡고 (가급적 Key부분을 잡지 말고)조립합니다.
- ③ Body와 Footjoint 조립: Body 와 Barrel 부분과 Footjoint 는 전체를 가볍게 감아쥐고 조립합니다.
- ④ 비뚤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맞추어 돌려가면서 조립합니다. joint 가 휘게 되면 연결한 상태가 헐거워지고, 심하면 footjoint 가 빠질 수 있습니다.

3) 연주 후

플루트 연주 후 악기 관리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주 후에는 악기 안팎을 잘 닦고 케이스에 넣어 보관합니다.
- ② 악기를 분리할 때에도 조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Key 부분을 잡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③ 먼저 소제봉과 면수건을 사용하여 악기 속에 있는 습기를 닦아줍니다.
- ④ 악기 표면은 부드러운 용으로 손자국 등을 닦아줍니다. 이때 Pad 부분은 닿지 않도록 조심 합니다. Pad skin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또 Key mecharism 부분도 조심합니다. Spring이 빠질 수 있습니다.
- ⑤ Cleaning paper 등을 사용하여 pad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 ⑥ 부드러운 용에 알콜을 묻힌 후 닦아주면, 악기를 깨끗이 보관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땀에 들어 있는 염분과 기름기가 악기를 빨리 변색시키는데 이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4) 일반적인 사항

플루트 악기의 일반적인 관리법에 대해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악기를 들고 있을 때 Headjoint 부분만 잡고 있으면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Barrel 부분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② Ring key를 사용하시는 분은 가급적 Ring을 막지 말고 연습해서 Ring Key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Ring Key를 막으면 음정과 음색이 나빠집니다.

③ 부득이 일시적으로 Ring Key를 막아 사용한 후 Cork를 뺄 때에는 눌러서 빼지 말고 바늘이나 핀셋을 사용하여 위로 빼 주십시오. Maker에 따라서는 Key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정기적으로 (최소 6개월에 1회)수리실을 방문하여 Key Oil을 보충해 주십시오. Key Oil이 마르면 Key가 마모되고 잡음이 생기며 소리가 나빠집니다.

⑤ Pad 악기는 사용 중 Balance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수리실을 방문하여 바로 잡으십시오. 그대로 사용하면 악기도 나빠지고 주범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⑥ 악기를 전체수리 할 때에는 가급적 순정부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Pad를 사용하게 되면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⑦ 악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특히 Pad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⑧ 악기를 흔들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다닐 때에도 가급적 세우지 말고 옆으로 눕혀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제 4 장 효과적인 지도 방안

제 1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에 대한 설문 조사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세우기 위해 현재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와 설문지 결과를 바탕으로 플루트 입문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 10대 학생부터 50대 성인까지의 아마추어를 연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현재 방과 후 활동, 문화 센터, 음악학원, 개인 및 단체 레슨을 받고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김희정(2005)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의 효율적 교수방법의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김희정(200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된 14문항의 질문으로 작성되었다.

〈표4-1〉와 같이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일반적인 사항 4문항, 학습의 동기와 목표 3문항, 학습자의 요구도와 성취도 5문항, 플루트 학습의 효과

와 향후 교육에 대한 의견 2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소재의 학교의 방과후 활동, 문화 센터, 음악학원, 개인 및 단체 레슨을 받고 있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대상으로 2010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설문지 100부를 직접, 간접적으로 방문 또는 우편, E-mail.을 통해 배부하였으며, 실제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87부의 설문지를 본 조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4-1〉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 문항	문항
플루트 입문자 일반적 사항	나이	1-4(4문항)
	연령	
	직업	
	플루트 배우는 장소	
흥미도학습의 동기와 목표	플루트 배우는 동기	5-7(3문항)
	플루트 배우는 목적	
	플루트 지도 수준	
학습자의 요구도와 성취도	레슨에 대한 성취도	8-12(5문항)
	레슨에 대한 음악 이해도	
	바라는 플루트 활동	
	악기선택 및 관리법 필요성	
	레슨에 대한 부족한 부분	
플루트 학습의 효과와 바라는 점	플루트 학습의 효과	13-14(2문항)
	플루트 학습의 바라는 점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 및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성별, 연령, 직업, 플루트 배우는 장소)과 운영실태(학습의 동기와 목표, 학습자의 요구도와 성취도, 플루트 학습의 효과와 플루트 교육에 대한 조언)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플루트 배우는 장소)과 운영 실태(학습자의 요구도와 성취도)에 따른 본인의 성취도, 음악의 이해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3. 설문지 분석

1)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의 일반적 사항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의 일반적인 성별과 나이, 직업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4-2>와 같다.

<표4-2>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	17.2
	여	72	82.8
연령	10대	10	11.5
	20대	30	34.5
	30대	22	25.3
	40대	15	17.2
	50대	10	11.5
직업	학생	25	28.8
	회사원	23	26.4
	자영업	11	12.6
	전문직	10	11.5
	주부	18	20.7
플루트 배우는 장소	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활동	8	9.2
	음악학원	47	54.0
	문화 센터	13	15.0
	개인 레슨	19	21.8

2) 학습의 동기와 목적

(1)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

본 설문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와 목적 그리고 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4-3> 다음과 같다.

<표4-3>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	빈도(N=87)(명)	비율(%)
본인이 배우고 싶어서	37	42.5
친구의 권유로	19	21.8
정서적 안정을 위해	18	20.7
가족의 권유로	6	6.9
기타	7	8.1
전 체	87	100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본인이 배우고 싶어서” 42.5% (37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친구의 권유로” 21.8%(19명),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7%(18명), “가족의 권유로”, 6.9%(6명), “기타” 8.1%(7명)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특징을 가진다. 즉 학생들이 본인이 배우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플루트 배우는 목적

〈표4-4〉 플루트 배우는 목적

플루트 배우는 목적	빈도(N=87)(명)	비율(%)
전문 연주가가 되기 위해	6	6.9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	42	48.3
교회 연주 및 봉사활동을 위해	8	9.2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과정	9	10.3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22	25.3
전 체	87	100

“플루트 배우는 목적”에 대한 질문에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 48.3%(42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25.3%(22명),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과정” 10.3%(9명), “교회 연주 및 봉사활동을 위해 ” 9.2%(8명), “전문 연주가가 되기 위해” 6.9%(6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플루트 배우는 목적이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가 가장 많이 응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여가 선용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원하는 플루트 목표 수준

〈표4-5〉 원하는 플루트 목표 수준

원하는 플루트 목표 수준	빈도(N=87)(명)	비율(%)
초급 :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	0	0
중급 :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을 연주	27	31.0
고급 : 클래식 명곡, 연주곡들을 연주	39	44.8
고급이상 : 어려운 플루트 곡들을 연주	16	18.4
전공자 수준까지	5	5.8
전 체	87	100

“플루트를 배우기 원하는 목표 수준”에 대한 질문에 “고급의 클래식 명곡, 연주곡들의 연주” 44.8%(39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중급의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 연주” 31.0%(27명), “고급 이상의 어려운 플루트 곡들의 연주” 18.4%(16명), “전공자 수준까지” 5.8%(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플루트를 배울 때의 목표 수준은 중급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수준의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수준은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3) 학습자의 요구도와 성취도

(1) 본인의 성취도 조사

플루트를 배우는 장소에 대한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 레슨의 경우가 본인의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학원, 문화센터, 방과 후 특기 적성 활동 순으로 플루트 레슨에 대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본인의 성취도

변인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이다	낮다	매우 낮다
플루트 배우 는 장소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	빈도 1 % 12.5%	2 25.0%	5 62.5%	0 .0%	0 .0%
	음악학원	빈도 15 % 31.9%	18 38.3%	8 17.0%	4 8.5%	2 4.3%
	문화센터	빈도 3 % 23.1%	4 30.8%	6 46.2%	0 .0%	0 .0%
	개인레슨	빈도 10 % 52.6%	5 26.3%	4 21.1%	0 %	0 %
전체		빈도 29 % 33.3%	29 33.3%	23 26.4%	4 4.6%	2 2.3%

(2) 음악의 이해에 대한 생각

플루트 배우는 장소에 대한 감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개인 레슨이 가장 음악의 이해에 대한 생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학원, 방과 후 특기 적성 활동, 문화 센터 순으로 이해에 대한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음악의 이해에 대한 생각

변인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플루트 배우는 장소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	빈도 2 % 25%	5 62.5%	1 12.5%	0 .0%	0 .0%
	음악학원	빈도 24 % 51.2%	8 17.0%	10 21.3%	5 10.6%	0 .0%
	문화 센터	빈도 3 % 23.1%	2 15.4%	8 61.5%	0 .0%	0 .0%
	개인레슨	빈도 10 % 52.6%	7 36.8%	2 10.6%	0 .0%	0 .0%
전체		빈도 39 % 44.8%	22 25.3%	21 24.1%	5 5.7%	0 .0%

(3)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음악 장르

〈표4-8〉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음악 장르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음악 장르	빈도(N=87)(명)	비율(%)
동요	12	13.8
교회음악(찬송가, 복음성가)	24	27.6
재즈	17	19.5
대중음악(영화 음악, 대중가요)	33	37.9
기타	1	1.2
전체	87	100

“앞으로 배우고 싶은 음악 장르”에 대한 질문에 “대중음악” 37.9%(33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교회음악” 27.6%(24명), “재즈” 19.5%(17명), “동요” 13.8%(12명), “기타” 1.2%(1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플루트를 배우고 싶은 음악 장르는 대중음악과 교회 음악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요나, 재즈의 선호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플루트 악기의 선택법이나 관리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표4-9〉악기의 선택법이나 관리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

악기 교육의 필요성	빈도(N=87)(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50	57.5
필요하다.	28	32.2
보통이다.	9	10.3
필요없다.	0	0
전혀 필요없다.	0	0
전 체	87	100

“악기의 선택법이나 관리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필요하다” 57.5%(50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필요하다.” 32.2%(28명), “보통이다.” 10.3%(9명)순으로 응답하였고, “필요없다.”, “매우 필요없다”는 응답은 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플루트 악기의 선택법이나 관리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악기의 선택법이나 관리법이 교육에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5)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

〈표4-10〉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	빈도(N=)(87명)	비율(%)
자세	19	21.8
소리내기	49	56.3
텅잉	36	41.4
호흡법	53	60.9
입모양	28	32.2
리듬	11	12.6
박자	16	18.4

“플루트 입문자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다중 응답결과”에 대한 질문에 “호흡법” 60.9%(명)로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리내기” 56.3%(49명), “텅잉” 41.4%(36명), “입53모양” 32.2%(28명), “자세” 21.8%(19명), “박자” 18.4%(16명), “리듬” 12.6%(11명)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호흡법, 소리내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 교육에서 호흡법이나, 소리내기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의 효과와 학습자들의 조언

본 설문에서는 플루트를 배우면서 생긴 바람직한 변화와 효과적인 플루트 교육의 바라는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11〉 플루트 배우면서 생긴 바람직한 변화

플루트 배우면서 생긴 바람직한 변화	빈도(N=87)(명)	비율(%)
악보 읽기 등 음악 이론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다.	42	48.3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다.	57	65.5
생활에 즐거움이 생겼다.	36	41.4
음악적 감각이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었다.	49	56.3
악기를 다루는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졌다.	35	40.2

“플루트를 배우면서 생긴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다중 응답결과”에 대한 질문에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졌다.” 65.5%(57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음악적 감각이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었다.” 56.3%(49명), “악보 읽기 등 음악이론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다.” 48.3%(42명), “생활에 즐거움이 생겼다.” 41.4%(36명), “악기를 다루는 능력과 자신감이 높아졌다.” 40.2%(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플루트를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음악적 감각이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고, 음악적 지식이 넓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 교육을 위한 조언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의견으로 “단체의 레슨 보다는 개인의 위주의 레슨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의견이 많았다. 이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는 단체의 레슨 보다는 개인의 1:1 레슨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센터나 방과 후 활동의 교육의 경우 단체로 수업하는 것이라 배우는 데에 힘이 들고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기 어려웠다”, “기초부분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는 의견도 함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은 단체 레슨 보다는 개인레슨이 더 효율적이고, 기초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쉬운 교재를 통해 교육받기를 원한다.”, 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는 아직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레슨 이외에 볼 수 있는 교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악기 선택에 있어 힘든 점이 있다.”

“더 많은 교재와, 교육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도 함께 있었다. 앞으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교재의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제 2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연주자세

플루트 연주 자세는 원활한 연주를 위하여 초기에 바로잡아 몸에 익혀야 하고 얼마만큼 잘 설정 되었느냐에 따라 초기 소리내기와 구축하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 연주하는 모습도 보기 좋아진다.

처음악기를 잡을 때는 누구나 어색하기만 하다. 이때 잘 접근이 되어야 정착이 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서서히 익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항상 나누어 시도하는 것이 좋은데 몸통을 들어보고 그리고 손가락을 제 위치에 가기 전 몸통만 잡고 입술에 대본다. 그러면 양손의 이동 정도와 어색했던 감각이 덜하게 된다. 반복하여 실시하고 다음 손가락이 제자리에 놓이게 한 다음 입술에 대보고 하는 반복을 한다.

1. 선 자세

서서 연주할 때의 자세이다. 얼굴은 항상 바르게 해야 하고 배는 약간 들이밀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이다. 악기를 들었을 때는 양팔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양발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왼발이 약간 앞으로 전진하여 자리한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자세는 원활한 호흡이 되게 하여 완벽한 연주를 추구하기 위함이며 모든 에너지는 신체의 각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연주를 위해 소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세 자연스럽게 못한 동작, 자세 등은 배제 되어야하고 모든 긴장은 이완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림4-1〉 플루트 연주 선자세

2. 손과 팔의 위치

첫째, 왼손 검지의 셋째 마디이고 여기에 악기를 얼마만큼 잘 안착시키는지의 여부가 최고의 포인트이다. 초기에는 악기를 좀 쥐고 있으면 이곳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 통증 부위를 피하기 위해 마디의 중심에서 위, 아래로 악기를 밀어내게 된다. 이때부터 이상 조짐이 나타나는 것인데 장시간은 피하고 단시간 자주 반복 하여 실시하여 마디의 중앙부에 악기가 안착 되도록 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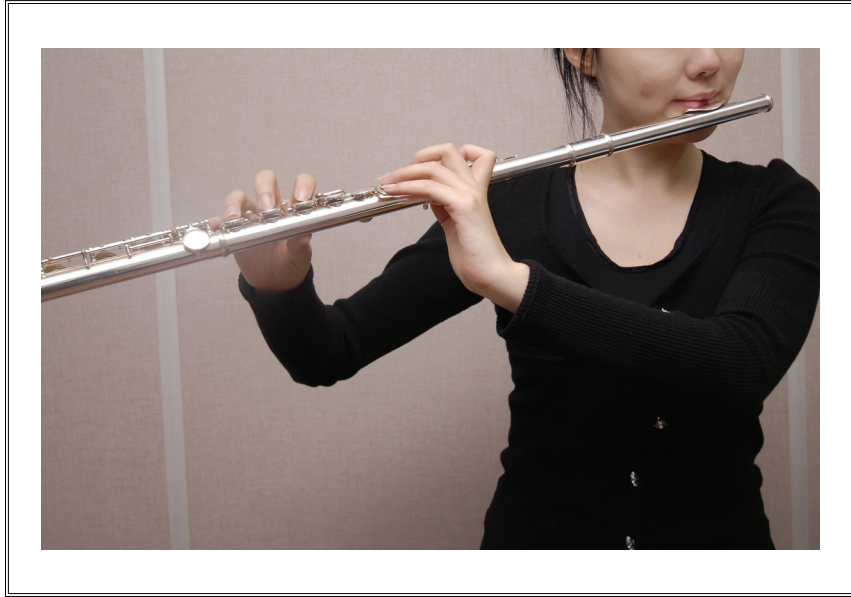
둘째, 오른손 엄지의 위치는 악기 상부에 있는 검지의 약간 아래 중지 쪽으

로 붙이는 것이 좋다. 검지 첫마디의 중앙부가 악기의 몸통에 밀착 되어야 한다.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여서 통증을 느끼면 구부린다든지 마디사이에 걸친다든지 악기 상단 방향 하단방향으로 옮기는 경우가 생긴다.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세밀하게 지적 교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셋째, 아랫입술 악기 헤드(head)의 립 플레이트 (Lip plate)를 대는 부분으로 이곳에 악기를 단단히 밀착시켜야한다. 물론 왼손의 검지에서 밀착하기 위한 압력을 가 하지만 입술 자체도 악기를 끌어안는 기분으로 거치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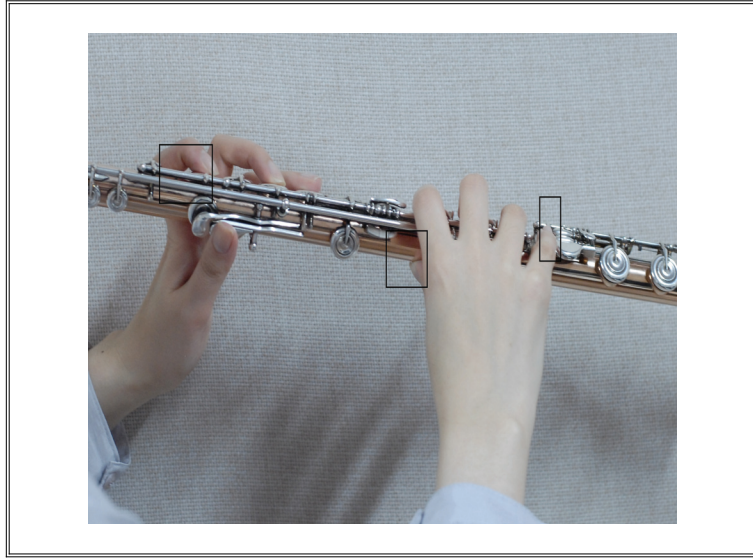


〈그림 4-2〉 팔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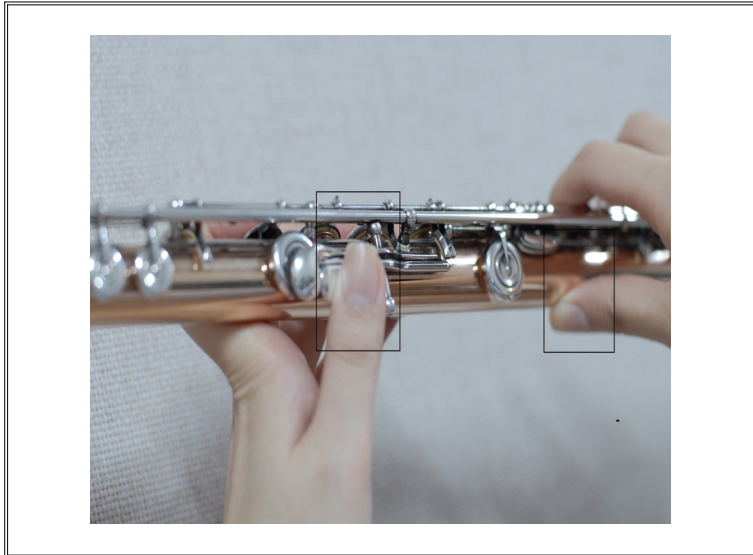


〈그림 4-3〉 팔을 들고 있는 바른 자세그림

플루트를 받치려면 주로 세 군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즉 왼손 검지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다. 턱도 플루트를 받치는데 도움이 되지만 너무 턱으로 짊 누르면 암부셔의 사용법이 몹시 방해를 받으므로 턱 자체로 받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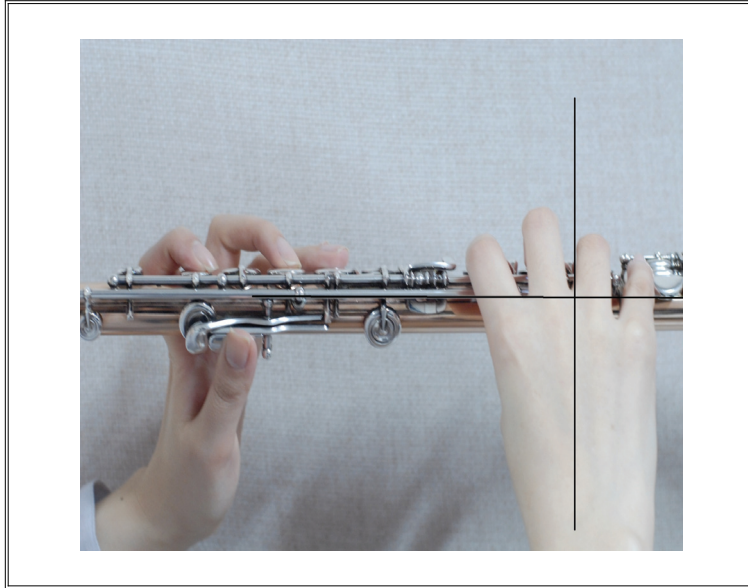
〈그림4-4〉 플루트를 받치고 있는 그림



〈그림4-5〉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의 위치

〈그림4-6〉처럼 플루트를 왼손 집게손가락 밑동에 대고, 손가락 끝은 키를 누를 수 있도록 가볍게 구부린다. 오른손 받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양쪽을 잘 사용해야 한다. 엄지손가락은 아래에서 플루트를 받쳐야 하므로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의 바로 한가운데 아래 정도의 위치로 해서 엄지손가락 제1관절 한가운데를 플루트에 댄다. 오른손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먼저 손목에서 손끝까지 힘을 빼고(축 늘어지게) 오른팔을 살짝 들어본다. 어느 손가락이고 다 유연하게 구부러져 있음을 느낀다. 또 엄지의 지문이 있는 면은 검지의 지문이 있는 면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도 보게 된다. 여기서 엄지와 손바닥(다른 네 손가락)과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플루트 위로 옮겨 간다. 그리고 살짝 구부러진 손가락을 키위에 새끼손가락은 Eb키에 올려놓는다. 키에 올려진 4개의 손가락은 모두 바른 방향(플루트 관에 대해 거의 직각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한다. 좌로나 우로 돌아가 있으면 안 된다. 손가락 끝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쉬우므로 주의 한다.¹¹⁾

11) 정병태, “앞의 논문”, 2006, p23.



〈그림4-6〉 오른손과 플루트가 거의 직각방향인 그림

자세가 좋지 않아도 좋은 연주를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잘 못하는 연주자는 별로 없다. 연주의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도입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간단히 D#레버에 도달해야 하고 또 동시에 엄지손가락과 함께 플루트를 받치는 일을 거들어 주어야 한다. 이 키는 단지 두 세음에 대해서만 인토네이션이나 음색에 영향을 줄 뿐이며 본래는 플루트를 단단히 받치기 위해 누르는 것이다. 새끼손가락 약손가락이나 가운데손가락과 분리해서는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새끼손가락만으로 키를 계속 누르기란 매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움직임을 경시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버리면 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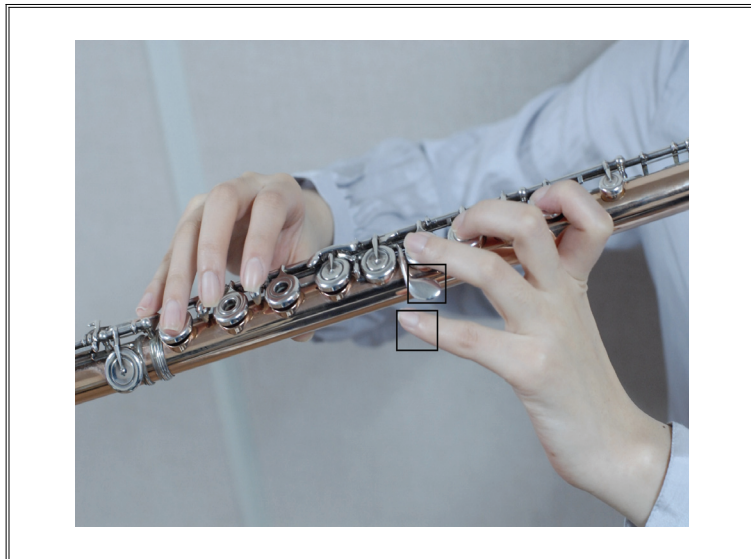
한 오른손 테크닉조차도 잘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플루트를 단단히 받칠 수 없으면 암부서의 사용법도 향상도 느려지게 된다.

새끼손가락 이외의 오른손 손가락은 손끝을 가볍게 키위에 얹은 채로 구부려야 한다. 이들 손가락은 액션로드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른손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이 액션로드에 걸리는 것은 보통 플루트를 좀 더 단단히 받치려고 할 때 생긴다. 그 때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고치는 일이 필요해 진다. 왼손의 경우도 손끝이 키를 움직이는데 좋도록 구부린다. 왼 손목은 손끝이 각 키에 쉽게 닿도록 구부려야 한다. 약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정확하게 닿아 있지 않으면 이를 손가락으로 키를 누르려고 할 때마다 손 전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매우 시간이 걸리고 더 나아가 입술과의 관계에서 플루트의 위치를 동요시키므로 곤란하다. 같은 이유로 새끼손가락도 레버 밑에 놓기보다는 오히려 항상 레버 위에 놓아둔 채로 있어야 한다.¹²⁾

12) 정병태, “앞의 논문”, 2006, p24.



〈그림4-7〉 왼손 새끼손가락이 레버위에 있는 그림



〈그림4-8〉 왼손 새끼손가락이 레버 밑에 있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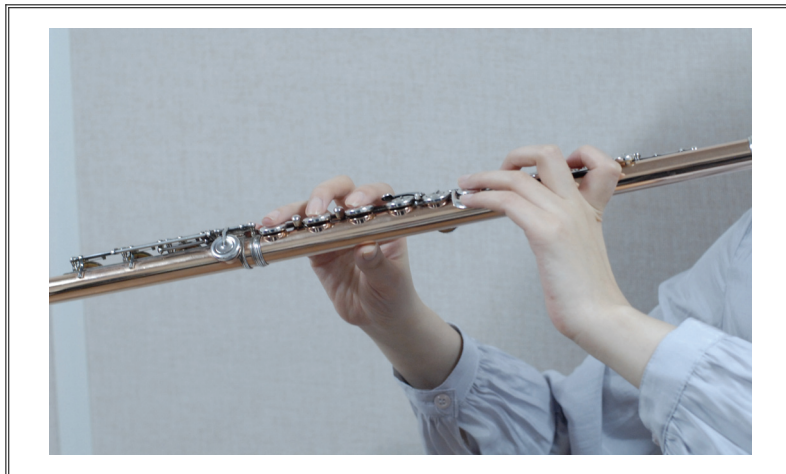
3. 플루트 쥐는 방법

왼손 검지가 정확하게 자세가 갖추어 졌을 때 왼손의 모습은 악기와 거의 직각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손목은 자연스럽게 굴곡을 이루게 된다. 처음시 점에는 갖추어진 모양이 소리 내는데 신경을 쓰다보면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 반사 이다.

오른손목도 악기를 가볍게 쥐 상태에서 손목이 살짝 굴곡을 이루게 되어야 하며 팔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몸에 붙는 경우는 보기에다 좋지 않다. 이 양손의 모양은 취구의 적당하고 고정적인 상태를 유지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며 오른손목 이 손과 수직을 이룬다든지 위로 들리는 경우는 취구가 항상 지나치게 열린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원만한 취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연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필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등한시 했을 때 는 어느새 잘못된 자세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왼팔이 원래 상태로 되려는 작용으로 악기가 왼쪽으로 끌려가 입술 홀과 취구의 중앙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익숙해지기 전에 수시로 교정해 나가야 한다.



〈그림4-9〉 플루트 쥐는 방법

제 2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호흡법

1. 복식 호흡

관악기 연주자들에게 있어서 호흡은 악기연주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매커니즘으로 여겨지고 음악적 내용에서 벗어나 따로 연습할 만큼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작용한다. 특히 초급자에게 있어서 호흡이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셔서 배, 옆구리까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도록 하며 배꼽 아래 복부를 허리 쪽으로 당기는 기분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때 어깨, 목, 입술 등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며 목과 입안을 하품하듯이 넓혀서 호흡한다. 이러한 방식을 복식 호흡이라고 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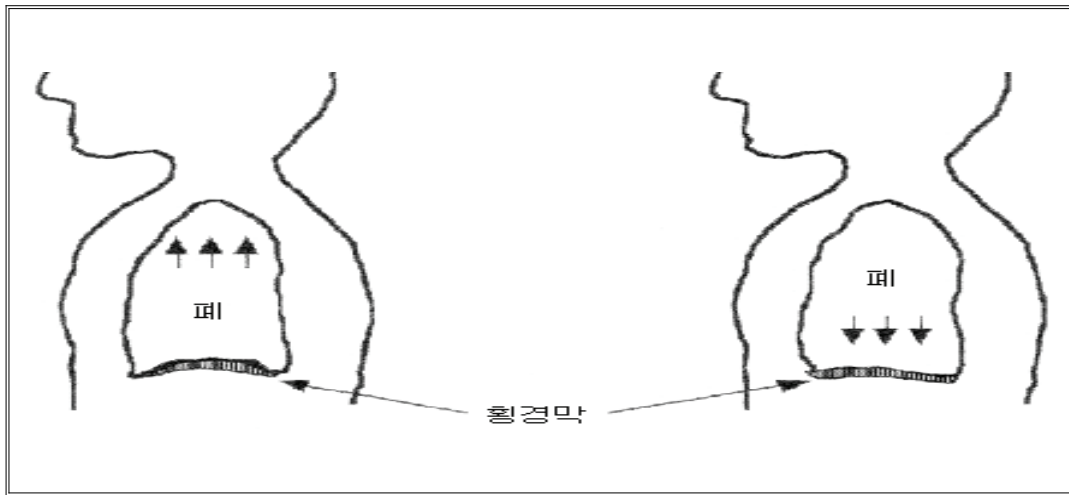
호흡을 지나치게 자주하게 되면 일괄적인 멜로디의 흐름을 정지시키게 되어 원래의 작품이 손상되기도 한다. 호흡법은 그리 쉽게 터득되어질 수 없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교사의 올바른 지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플루트를 부는데 있어서 호흡의 훈련은 가장 비중 높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아름다운 소리의 울림과 확고한 음정, 소리에 대한 힘의 근원은 호흡에너지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호흡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길러져야 하는데 폐활량의 증진, 호흡 조절 능력 그리고 호흡의 효과적 사용법에 있다. 올바른 호흡은 충분한 바람을 저장하여 바람의 양을 조절 하면서 정확한 음정을 구사하고 연주자가 원하는 음량과 소리를 만들게 해 주는데, 이 호흡법이 바로 복식 호흡이다. 복식호흡은 말 그대로 배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하며 빠른 순간에 호흡을 들이 마

13) 김상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플루트 기초 교실」, 일신서적 출판, 출판년도 미상, p7.

시고 입술 모양을 만들어서 천천히 입김을 내보내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가슴으로 숨을 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깨 힘을 빼고 숨을 들며 마셨을 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배와 옆구리만을 이용해 호흡을 해야 한다. <그림4-10>에서 볼 수 있듯이 횡격막의 수축과 확장을 통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것은 주사기의 실린더와 피스톤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실린더는 폐에 해당되고 피스톤은 횡격막에 해당된다. 따라서 횡격막을 아래로 수축, 확장 시킬 수 있는 피스톤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¹⁴⁾



<그림4-10> 횡격막

14) 최애라, “플루트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 중학 교과서 제재곡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p14-15.

2. 호흡시 유의점

호흡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연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¹⁵⁾

첫째, 가슴 호흡을 하지 않는다.(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둘째, 어깨, 가슴, 목, 부분의 근육의 긴장을 푼다.

셋째, 숨을 들이 마실 때 되도록 거친 숨소리를 내지 않는다.

넷째, 배 근육에는 배의 압력을 지탱하는 듯한 느낌이 오지만, 배의 압력을 밀면서 호흡하지 않는다.

다섯째, 호흡은 배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을 들이 쉬었을 때에 배와 옆구리, 등까지 모두가 움직여서 고무풍선처럼 둥글게 팽창되게 한다. 이 때 엉덩이 둔부 근육은 수축되고 배 근육은 이완 되게 해야 한다.

제 3 절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암부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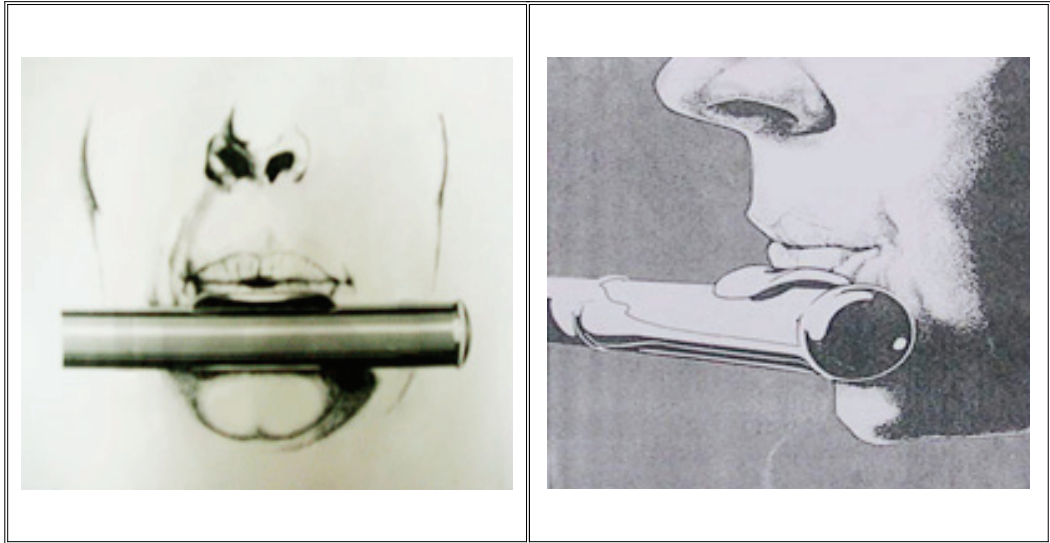
암부셔(Embouchure)¹⁶⁾는 헤드에 있는 취구에 숨결을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음정과 음색을 조절하는 중요한 주법 중 하나이다. 플루트 연주자의 모든 자세와 기법 중에서 이 암부셔 만큼 개인차가 심하고 일반원칙이 없는 것도 드물다. 사람의 신체는 어느 정도 개인차가 있듯이 입의 크기, 입술의 모양과 두께, 입을 다물었을 때의 입매, 입을 열었을 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

15) 전미선, "플루트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17.

16) 암부셔(Embouchure)라는 말은 관악기 주자가 연주 시에 취하는 입술 모양을 뜻한다. 관악기의 마우스피스 즉 입김을 불어넣는 취주구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도 때에 따라 입술모양 이나 입술의 쓰임 방법의 뜻으로 쓰기도 하고 마우스피스 자체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문이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만 그러하고 입속까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암부셔도 전혀 다른 소리가 날 수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른 암부셔라도 비슷한 소리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만의 암부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암부셔 만들기



〈그림4-11〉 암부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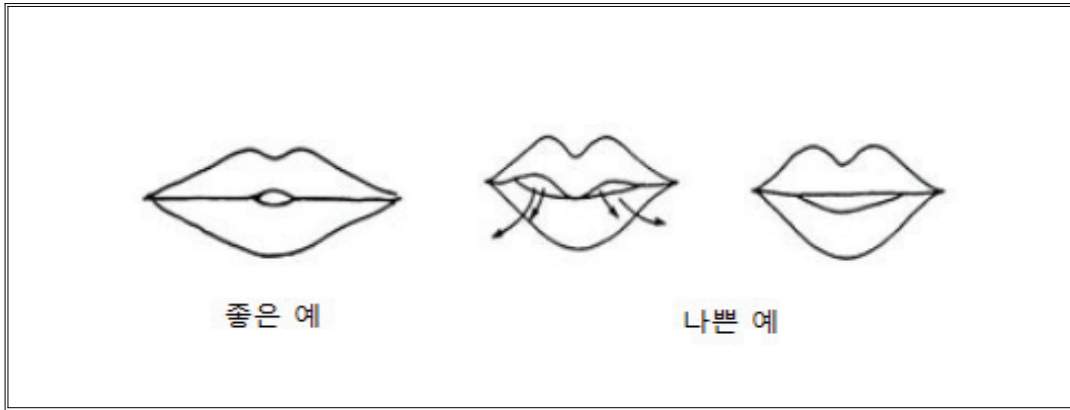
우선 암부셔를 형성하는 근육은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미소 짓는 듯한 표정으로 암부셔를 만들면 입술의 양끝이 올라가 버리므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윗입술은 굳게 다물고 아랫입술은 조금 느슨하게 벌려 입술 양끝을 뒤로 당기든지 혹은 아래로 당긴다. 입을 이와 같은 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암부셔 홀에 낸다. 이때 엄두에 두

어야 할 사항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는 입김의 흐름을 어디에 집중시킬 것인가, 둘째, 아랫입술을 압부셔 홀에 얼마만큼 씌우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헤드의 압부셔 홀에 입술이 닿았을 때 편안하게 느껴져야 한다. 부는 입김의 흐름은 압부셔 홀의 아랫입술을 대고 있지 않은 쪽의 모서리를 향해 집중되어야 한다. 대개 위아래 입술 사이의 틈은 입 한 가운데든지 혹은 거의 중앙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압부셔의 홀의 중심은 필요에 따라 플루트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여 결정한다. 입김의 흐름은 보통 입술에서 똑바로 나오므로 입술 틈의 중심과 압부셔 홀의 중심은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한다.(Edwin Putnik, 1990)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랫입술을 립플레이트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입술을 당겨서 일자로 다물되 한 가운데로 바늘만한 구멍을 만든다.

그 후 양쪽 다 비슷하게 힘을 주어 긴장을 유지한다. 윗입술은 아주 조금 긴장을 유지한다. 아랫입술은 압부셔 홀의 1/4나 1/3을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랫입술이 너무 작게 막아 압부셔 홀이 크게 열리면 음질 면에서 모아진 소리가 아닌 퍼진 빈약한 소리가 되고 만다. 게다가 음을 내기 위해 부는 입김의 양도 훨씬 많이 내야 하게 되고 최고 음역의 음을 내는 것이 어려워져 필요 이상으로 세게 불어 높은 음을 내야 한다. 반대로 아랫입술로 압부셔 홀을 지나치게 막으면 음질은 작고 가늘어 진다. 이렇게 되면 소리의 탄력성이나 레가토의 용이함, 다이내믹한 소리의 변화에 한계를 가진다.

압부셔 모양을 만들고 압부셔 홀을 막는 위치를 찾았다면, 플루트의 각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 보면서 소리를 내는 가장 적합한 각도를 찾아본다. 턱 모양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므로 개개인이 실험해 보고 스스로 조정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윗입술이 조금 나오고 아랫입술이 약간 들어가는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준다. 어느 정도 학생이 적응이 되면 학습자 자신도 자기

자신의 입술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암부서 홀에 입술을 바르게 대는 습관을 확립할 수 있고 그 위치관계를 아무 때나 조절할 수 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은 서로 약간 긴장된 상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윗입술은 숨결을 조절하고 아랫입술은 암부서 홀에 직접 닿는 입술이므로 그 둘의 적절한 긴장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림4-12>암부서 좋은 예와 나쁜 예

2. 립플레이트(Lip Plate)에 입술 위치고정과 턱의 움직임

초기 단계의 학습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플루트에 입술의 일정한 위치를 매번 얻을 수 있게 하는 연습이다. 이 연습을 많이 하다보면 암부서 홀에 대는 위치는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이후부터 높은 음역과 낮은 음역의 암부서 모양의 조절에 들어가게 된다. 원칙적으로 음역이 낮을수록, 또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입김을 불어 넣어야 하고 아랫입술로 암부서

흡을 막는 부분을 적게 해야 한다. 반대로 높은음으로 부드러운 음을 내려고 할 때는 아랫입술을 압부셔 흡에 많이 막고 공기주가 압부셔 흡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낮은 음이나 큰소리를 낼 때에는 입술구멍을 크게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공기주도 크게 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공기주의 방향이나 크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변화를 얻기 위해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상호 관계 및 양 입술과 압부셔 흡의 관계를 세밀하게 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위에 말한 대로 조절하기 위해 학습자는 플루트를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머리를 상하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방법은 악기위치가 변화되기 때문에 음질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확한 소리를 가지게 되며 음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거나 낮아지며 연주할 때에도 보기 좋지 않다. 음역, 음의 높낮이, 음의 강도 면에 걸쳐 압부셔를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아래턱을 앞뒤로 움직임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기주의 방향은 소리를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즉 낮은음역의 음이나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아래턱을 자기 앞쪽으로 당겨야 한다. 반대로 높은음역의 음이나 작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아래턱을 조금 더 멀리 보내야 하는 것이다. 턱의 사용으로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한 것보다도 확실하고 간단하게 음의 높낮이, 음역 및 강도의 변화를 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습은 옥타브를 천천히 연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현대사회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 문화, 예술 분야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는 학교나 개인적으로 다루어지는 악기들은 현악기나 피아노 정도에 국한 되었지만, 최근에는 초, 중, 고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문화센터에서 악기교육의 확대로 인하여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매우 다양해 졌다. 따라서 관악기인 플루트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플루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플루트는 아마추어들을 위한 지도 방안이나 선택 관리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는 악기를 선택 및 관리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에 가장 기초인 효율적인 악기 선택이나 관리법, 입문자를 위한 교육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 지도를 위한 플루트의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플루트의 사용법으로 선택법, 조립법,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의 교육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해보고, 기본적 악기의 이해를 통한 악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기본연주자세 및 호흡연습법에 대한 효과적인 플루트 지도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악기의 선택법에 있어서는 사용과 관리가 미숙한 초보자들에게는 가격이 저렴하고 단단하며, 쉽게 울리는 니켈실버로 만들어진 저먼 스타일의 악기가 적합하고, 또한 고음 '미' 소리를 보완해주는

E-메커니즘 스타일이 초보자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관리법으로는 연주 전, 연주 후, 일반적인 관리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교육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먼저 플루트 입문자의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4.5%(30명), 30대가 25.3%(22명)로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플루트를 배우는 장소로는 음악학원이 54%(47명)로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개인 및 단체 레슨, 문화센터, 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활동 순으로 조사 되었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플루트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본인이 배우고 싶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 동기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목적으로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해 전문가적인 연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플루트 지도 방안 및 악기 선택 및 관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입문자들에게 효율적인 지도 방안과 악기 선택 및 관리법이 필요한 것은 조사 대상자들의 플루트 목표 수준이 중급 혹은 고급을 연주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많아 더욱 중요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원하는 음악장르로는 학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음악이나, 교회음악과 같은 평범한 곡을 연주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악기 선택 및 관리법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조사 대상자 모두가 악기 선택 및 관리법에 대해 필요하

다고 응답해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악기 선택 및 관리법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배우는 교육 내용 중 가장 힘든 부분은 호흡법이나, 소리 내기, 텅잉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힘든 것으로 나타나, 플루트 입문자의 지도 방안의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이 배우는 장소에 따른 성취도 조사에서는 개인 1:1 레슨의 경우가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의 이해의 부분에서도 개인 1:1 레슨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을 위한 교육은 음악학원, 문화 센터, 방과 후 활동과 같은 단체로 교육을 받는 곳보다 개인적 레슨이 플루트 아마추어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즉 개인 레슨의 경우가 단체 레슨의 경우보다 플루트 배우고자 하는 아마추어들에게 악기의 이해부분, 악기의 지도부분에서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에게는 효과적인 연주 자세의 교육을 통해 원활한 연주를 위해 초기에 바로 잡아 몸에 익혀야 한다. 이는 초기의 소리내기와 구축하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주하는 모습도 보기 좋게 된다. 올바른 선자세, 손과 팔의 위치, 플루트 쥐는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로 할 것이다.

플루트 악기는 관악기 중 가장 많은 입김을 필요하여 호흡의 훈련은 가장 비중을 놓고 시간을 할애해야 할 부분이다. 즉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있어 아름다운 소리의 울림과 확고한 음정을 내기 위해 호흡법이 중요하다.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은 음 내는 법을 익혀서 어느 정도 소리가나면 그 음을 받쳐주는 올바른 호흡법의 교육이 필요로 할 것이다.

플루트 연주에 있어 압부서는 헤드에 있는 취구에 숨결을 집중시켜주는 역할이며, 음정과 음색을 조절하는 주법이다. 사람에게서는 신체 개인차가 있어, 입의 크기, 입술의 모양과 두께, 입을 닫거나 열 때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자신만의 압부서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로 하다.

이에 앞으로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를 위한 교재 및 지도 방안의 교수법들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악기 선택 및 관리법, 그리고 지도방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도서 및 학술지

김상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플루트 기초 교실」, 일신서적 출판, 출판년도 미상.

김명서, 「자유로운 연주를 위한 이상적인 연습방법 (음악 신체 공학)」, 한양대학교출판부, 2007.

Michel Debost, 「The Simple Flute from A to Z」, 서울:음악세계, 2008.

James Galway, 플루트, 도서출판 예은, 1988.

학위 논문

김다미, 「효과적인 플루트 교육을 위한 뱀식 플루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연화, 「Flute의 구조적 변천과정과 연주기법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김효진, 「중학교 방과 후 플루트 수업 지도방안」,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희정, 「성인 초보자를 위한 플루트 교재연구 및 지도방안」,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미애, 「오르프 교수법에 기초한 플루트 실기지도안 연구 :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중심으로」,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선하, 「초보자를 위한 Flute 연주기법과 지도 방법 연구」, 대불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지현, 「플루트 교재에 관한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혜상, 「플루트의 구조적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배유리, 「플루트 실기지도를 위한 교재 비교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사공희, 「초등학교 특기적성 플루트를 위한 수준별 지도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심유진, 「플루트 기초교재 분석을 통한 실기지도에 관한 연구 : 중학교 방과 후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윤효상, 「플루트의 Head-Joint의 고찰과 현대 연주기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2008.
- 이복례, 「플루트의 발전사에 대한 고찰 : 악기구조중심」, 국제신학대학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이수진, 「플루트의 발달사에 대한 고찰 : 뽕식 플루트 중심」, 경상대 대학원, 2006.
- 임송이, 「Z. Kodaly Method를 활용한 Flute 실기 지도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전미선, 「플루트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국제신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정인숙, 「FLUTE 기초 교육을 위한 교재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정병태, 「초급단계의 효과적인 플루트 지도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정영진,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법 고찰 : 플루트교육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정희수, 「플루트 연주기법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최애라, 「플루트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 중학 교과서 제재곡을 중심으로」,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최원석, 「악기 재료와 악기 소리간의 관계 연구 : 플루트 재료를 중심으로」, 중앙대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한상복, 「Flute의 表現力 伸張을 爲한 實技指導 研究 : 中學生을 中心으로」,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홍인표, 「초, 중급자를 위한 플루트 선택방법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Playing Methods and Instructions for the Amateur of Flute

Lee, Eun-Ha

Major in Flute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Sungsin Women's Universit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rea of art culture in the modern society. Amid this, the kinds of musical instrument became various greatly in having access to play them thanks to the extension of aptitude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broad application of instrument training in cultural centers. Based on the interest in wind instrument flute as part of art culture, the population who plays this instrument is on the increase. And yet, it is a present reality that the instruction guide for the amateur is not sufficient and that information or knowledge lacks in selection and handling of instrument. For those amateur of flute, the method for instrument selection and handling should be followed in advance. As the most fundamental, some appropriate way should also be performed so that they can select and handle this instrument effectively and have training as a

novice player.

The study herein had an overview over the basic understandings, way of selection, fabrication method, and control or handling of this musical instrument for the amateur. Also, the work on the training statu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perform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s well. This study looked into the basic playing approach with which the amateur could have attraction in the flute with assistance in basic understandings and into the effective training method about breathing practice.

With regard to the status in educational circumstance and level of satisfaction, it could be summed up in the following.

Firstly, the survey on general environment of flute amateur showed that the female outnumbered the male in gender, while in the category of age, the group in 20–30 indicated the highest percentage. In terms of training place for flute, the private music academy took the most part.

Secondly, in the motivation to learn the flute, the voluntary willingness accounted for the biggest part. For the category of learning purpose, it turned out to be leisure, hobby, and specialty. Their aiming level showed the intermediate or advanced level of performance. The genre for the amateur to learn revealed the popular music and the church music.

Thirdly, on the part of amateur, it was found that the training on instrument selection and handling method were of great significance. As to the training for them, they felt it difficult to practice such a basic procedure as breathing, sounding, and tonguing as well.

Thirdly, the private lesson by one-to-one in person was indicated to have the highest degree of achievement in the category of training place. In addi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music, the one-to-one type of lesson was ranked the top in relation a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se findings, it should be preferred to develop the training materials and instruction methods for the flute novices in more actively manners. Hopefully,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the proper selection, better control, and improved guide for the amateur of flute.

- 부 록 -

설 문 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아마추어 플루트 연주자들의 플루트 교육의 실태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이 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단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성신 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기악 전공

이 은 하

※ 다음은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세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주부 ⑥ 기타

4. 귀하는 어디서 플루트를 배우고 있습니까?

- ① 학교 특기적성 방과 후 활동 ② 음악학원
③ 문화 센터 ④ 개인 및 단체 레슨

※ 다음은 플루트 교육 현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5. 플루트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이 배우고 싶어서
② 친구의 권유로
③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④ 가족의 권유로
⑤ 기타 ()

6. 플루트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 ②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 ③ 교회 연주 등 봉사 활동을 위해서
- ④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써
- ⑤ 자신의 음악적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7. 플루트 지도를 어느 수준까지 받기 원하십니까?

- ① 초급 : 쉬운 악보를 보고 연주
- ② 중급 : 소곡, 어려운 운지, 스케일을 연주
- ③ 고급 : 클래식 명곡, 연주곡들을 연주
- ④ 고급이상 : 어려운 플루트 곡들을 연구
- ⑤ 전공자 수준까지

8. 플루트 레슨에 대한 본인의 성취도(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다
- ⑤ 매우 낮다

9. 플루트를 배운 후 음악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